



모교 교육혁신프로그램에 70억원 지원

초일류 학과 만들기
'동영상 강의' 시동



지난 11월 12일 본회 林光洙회장과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연구지원사업기금 협약식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2013년 癸巳年 신년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3년 1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소공동 소재)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 한정된 좌석(최대 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2012년 12월 28일
(금)까지 꼭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
니다.

관악출추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에 있
어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
고, 교육의 주체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
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IT기술을 활용
한 e-러닝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환경에
서 2002년 유네스
코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선언과 함께 교육 자료(Open Educa-
tional Resources, OER)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OER운동이 계기가 된 것은 2001년
MIT가 시작한 대학 내의 강의를 디지털 형
태로 무료로 제공하는 OCW(Open Course
Ware)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OER 투자의
최고 규모로 알려진 MIT의 OCW는 세계적
인 지식망 구축을 목표로 MIT의 연구성과
와 교육내용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개설회 2년차에 5백개 강
좌를 무료로 전면 공개하면서 동문 및 일반

인들에게 지속적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교수들의 강의를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세
계에서 최초로 지식나눔을 주도한 대학으로
서의 이미지 제고에 성공했다.

현재 전 세계 2백여 대학들이 OCW 컨
소시엄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운영하고 있
으며 매달 25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
외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OER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MIT의 OCW를 벤치마킹한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KOCW에 참여하여 대학 강의 자

동영상화 하려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
하다. MIT는 기업들과 다양한 연계를 통
해 운영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서울대총
동창회는 금년도 장학빌딩 임대료 수입 40
억원 중 6억원을 교수 동영상 개발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외국인 강좌 2개를
포함해서 16개의 강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동창회가 적극적으로 모교 발전사업에 참
여한 것이다.

모교는 2015년 '학문 연구의 선택과 집
중'으로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2025년
'아시아의 허브대
학-글로벌 대학'
으로 굳기해서 세
계 10위권 대학으
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대학 발전은 지식나눔 운동으로

료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대학의 명강의를 스마트
폰으로 무료 제공하는 '서울대 OCW' 애플
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이 앱은 경제학부
李俊求교수의 '인간생활과 경제', 화학부
金熙濤교수의 '자연과학의 세계' 등이 인기
강좌로 뜨고 있다. 그러나 33개의 한국어
강의 콘텐츠와 13개의 영어 강의가 제공되
는 것이 전부이다. 이제 시작 단계라 그렇
겠지만 더 많은 강의 콘텐츠 개발이 필수과
제 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서울대 강의를

아심찬 비전을 펼친 바 있다. OCW는 미
래대학의 핵심과제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강의내용은 대학의 발전을 가능하
는 척도가 된다. OCW사업은 인류의 지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식나눔 정신을 고
양시킨다고 유네스코는 조언하고 있다.
동창회의 '강의 동영상 지원사업'이 모교
의 지식 나눔운동을 촉진시켜 모교 발전
의 근간이 되길 바란다.

(安國正 前SBS 부회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동문들께서는 동창회보를 대선 직전인 12월 15일 전후에 읽겠지만 마감관계로 이 글을 쓰는 날은 11월 28일이다. 마침 조간신문을 보니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이 끝나 오늘(11월 28일)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고 한다.

1950년대나 196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선배들도 그랬던 것처럼 필자가 대학에 입학했던 1970년대에도 고교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모교인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한다. 아마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하려 할 것이다. 물론 의대 선호현상으로 다른 대학 의대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 서울대에 가고 그 다음 학생이 Y대나 K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행복과 출세는 학업성적순이 아닌 것은 명확한 것

같다. 물론 삼성그룹의 3세인 李在鎔씨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李秉喆, 鄭周永씨 등 대부분의 재벌 창업주들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경우도 성적순이라면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역대 대통령 중 서울대를 나온 우리 동문은 金泳三 前대통령뿐이지 않은가. 그 이후인 金大中 前대통령과 盧武鉉 前대통령 그리고 현직인 李明博대통령은 서울대 동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와 서울대

鄭世溶
내일신문 논설주간
본보 논설위원



이번 대선에도 우리 대학 출신이 출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대를 나온 李正姬 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정치학과를 졸업한 姜智遠 무소속 후보도 전국을 누비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들 말고도 ‘安哲秀현상’의 주인공인 安哲秀동문과 李健介, 沈相奵동문도 대선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진검승부로 서강대를 나온 朴槿惠 새누리당 후보나 경희대를 졸업한 文在寅 민주당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2002년 대선에서는 李滄昌동문이 盧武鉉대통령에게 석패했고 2007년 대선에서는 鄭東泳동문이 李明博大통령에게 졌다. 12월 19일 확정될 새 대통령도 분명히 서울대 동문은 아닐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일 필요도 없고 서울대 동문이 대통령직이나 국회의원직을 독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재들이 서울대에 모였다면 다음 선거인 2017년에는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가져본다.

관악시단

평안을 위하여

金南祚(국어교육47-51)
숙명여대 명예교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포레의 레퀴엠을 들으면
햇빛에도 눈물 난다
있는 자식 다 데리고
얼음벌판에 앉아 있는
겨울 햇빛
오오 연민하올 어머니여

평안 있으라
그 더욱 평안 있으라
죽은 이를 위한 진혼 미사곡에
산 이의 추위로
불 짝어 땀히노니

진실로 진실로
살고 있는 이와
살다 간 이
앞으로 살게 될 이들까지
영혼의 자매이러라

평안 있으라

동문칼럼

30년 넘게 나의 꿈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실내 건축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멀리 떠나 파리로 돌아가 쉬고 있던 2010년 초 여름,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님으로부터 마무리돼가고 있던 SNU장학빌딩안의 명예의 전당 디자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년여를 찾았다고 하시는 회장님의 성의에 감탄해 “해 드릴게요”라고 대답을 했다. 이 분야의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 만큼 나에겐 영광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컸다. 장학빌딩은 심정적으로 도운 동문들의 응원과 몸소 좌중우돌 뛰어다니신 회장단들의 노고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에 있었다. 7천여 명의 후원 동문들의 정성과 1천만원 이상의 후원으로 특지·기금장학회를 운영하시는 동문들 특히, 10억원 이상의 사재를 후원해주신 19명의 동문들! 다른 대학 같으면 10억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 한 명만 돼도 자랑스러운 모교인물로 크게 광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을 알고 어깨를 으쓱대며 후원해 주신 동문들을 자랑하는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동문들은 안에서는 나라를 끌고 나가는 중심축이며,

로 진행해 네이밍 작업을 마쳤다. 이후 스크린 영상과 음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드디어 오늘의 ‘베리타스홀(Veritas Hall)’을 완성했다.

그러나 처음 17층 꼭대기에 자리 잡기로 했던 장소는 나중에 살펴보니 전시장이 들어설 여건이 되지 못했고 우리의 우주선은 4층에서 잠시 멈춰하다가 2층에 면적을 더 활짝 넓힌 채 서서히 상륙하게 됐다. 여기에서 둥근 원형이었던 우리의 우주선은 앞에서 꺾뒀다. 7천여 명의 후원 동문명단이 정면에 느티나무를 상징하는 동벽위에 새겨져 반짝이고 좌측 벽에는 1천만원 이상을 후원하고 특지·기금장학회를 운영하시는 동문들의 동명판이 있고 그 가운데에 10억원 이



李種福
(응용미술62-66)
前숙명여대 산업대학원 교수

상을 후원하신 동문들의 이름담고 멋진 얼굴 부조가 물결을 이루며 장식돼 흔히 보는 부조의 딱딱한 표현과는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미술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 우측 벽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짙은 푸른색으로 장식해 그 위에 서울대 연혁과 동창회 연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관악대상 수상자, 언론인 대상 수상자 명단을 새겨 넣었다. 아직 비어있는 노벨 수상자 코너는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

미술전시회나 작은 음악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영상스크린과 음향시설도

베리타스홀이 탄생하기까지...

밖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실력과 명성으로 중심축이 돼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도 이끌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며칠간의 설친 밤잠과 고민 끝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젊은 연필을 집어 들었다. 명예의 전당을 우주선이라 상상하면서 우주에는 해와 달이 뜨고 별이 반짝이며 저 멀리에는 지구가 있고, 그 안에는 돌과 흙이 있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며 그 중심에는 모교가 있는 디자인 콘셉트를 잡았다.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평가와 디자인을 정리하며 전시 코너와 휴식 코너 등으로 나뉜 공간 활용에 대한 평가를 위한 회의와 PT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

갖췄다. 연말연시의 작은 모임, 사교와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휴식 코너도 마련했다. 동창회관이 장학빌딩으로 태어나 장학사업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위상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확실히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하나의 흠어진 모래가 아니라 정성과 후원의 연결고리로 뭉쳐진 진흙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드디어 2012년 겨울에 한해를 마무리짓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10월 25일 3시에 우리는 그 동안의 비밀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서울대와 서울대총동창회의 무한한 발전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애쓰신 분들의 꿈은 이뤄졌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B112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장학연구지원사업 기금 협약 체결

모교 120년사 편찬·역사기념관 건립도 지원

본회(회장 林光洙)와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11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본회가 모교의 법인화를 맞아 창의·융합·도전·협력의 학생교육혁신 프로그램 및 모교의 주요 강의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 60억원과 서울대 120년사 편찬 및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비 10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劉鐘海·朴熙伯·李相赫·朴成勳·姜寅求·辛鉉雄·金鍾燮·鄭八道 부회장, 관악회 孔大植상임이사, 趙弼濟·權永馱·鄭啓泳·朴明潤·金秉順이사, 金一燮감사, 崔鍾庫 대학원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任廷基기획부총장, 洪起玄교무처장, 成老鉉연구처장, 南益鉉기획처장, 林哲一교육부처장, 姜秉南 기초교육원 부원장, 金演洙의대 교육부학장, 李信亨공대 학사부학장, 裴哲炫종교학과 교수와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金炯周상임이사, 李碩遠발전본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吳然天총장·林光洙회장

“오늘 이 자리는 올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교에 적으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자리”라며 “장학연구지원사업은 세계 초일류 학과 및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주요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함으로써 모교가 국민 속으로 깊이 다가가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동창회는 이 사업을 위해 장학빌딩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6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지원사업으로 3년 후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의 유구한 역사를 기리기 위한 ‘서울대 120년사 편찬사업 및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비에 10억원

을 지원하는 등 총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吳然天총장은 감사패 낭독을 통해 “총동창회와 林光洙회장은 개학 원년 찾기, 장학빌딩 신축 등을 비롯해 서울대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하는 데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며 “출연해 주신 장학연구지원사업 기금은 서울대인의 뚜렷한 국가관과 미래를 선도할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연구역량을 쇄신하고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吳總장이 林光洙회장에게 장학연구지원사업 기금 마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규장각에 소장돼 있던 1870년대 청주 고지도를 증정했다.

기념 촬영 후 마련된 오찬에서 任廷基기획부총장은 건배사를 통해 “후학들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부를 해주신 총동창회 林光洙회장과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며 “앞으로 모교를 젊어질 학생들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고취하는 배려와 나눔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장학연구지원사업은 향후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학 기념 ‘117전’에 324점 출품

미대동창회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2012 서울대학교 117전’을 개최했다.

이는 올해로 개학 117주년을 맞은 모교의 유구한 역사를 기리는 한편 베리타스홀 개장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1백63명 동문이 3백24점의 회화와 조각작품을 출품해 76점의 판매 성과를 올렸다. 특히 개학 117주년을 기념해 거의 모든 작품을 1백17만원의 금액으로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에 열린 개막 행사에서 金鳳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는 총동창회의 장학빌딩 건립과 베리타스홀 개장을 축하하고 모교의 개학년도를 찾은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한 자리로서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이익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베리타스홀에 모교 출신 미술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전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모교의 성장과 영광을 표현하는 기념비로서 다른 미술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아우라를 발산할 것”이라며 “이

번 117전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회고의 장으로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개막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韓斗鎭·尹勤煥·孔大植·李炯均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基俊 前총장, 閔庚甲 화백, 李仁浩 前주러시아 대사, 한국학중앙연구원 鄭正佶원장, 국사편찬위원회 李泰鎮위원장, 대성그룹 金榮珠부회장, 崔鍾庫 대학원동창회장, 모교 朴彬沃 前평의원회 의장 등 1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晉敬琇(회화62-66)동문이 전시출품작 ‘山1’, 宋素映(응용미술62-66)동문이 ‘이탈’, 朴倫希(회화63-67)동문이 ‘군무2’, 金榮珠(회화66-70)동문이 ‘기쁨’, 徐在瑛(회화71-75)동문이 ‘섬6’을 본회에 기증했다.

본회가 지원하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이 지난 11월 20일 동아일보 A35면 사설란에 실렸다. 참고로 그 사설을 전재한다.〈편집자주〉

‘온라인 대학 강의’ 늘리고

스타교수 많이 나와야

리처드 톨러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성미자 및 핵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모터를 개발했다. 톨러 교수는 온라인 강의로도 유명하다. 2009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학생들이 뽑은 최고 명강의로 선정된 그의 수업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교육(youtu.be.com/edu)에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테러리즘 에너지 원자력 우주 지구온난화 같은 이슈를 다룬다. 국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온라인 강의가 낳은 스타다.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등 명문 대학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듀크대 노스웨스턴대 워싱턴대 등 10개 명문 대학은 2013년 가을 학기부터 학비(4000달러)를 받고 학점을 인정하는 온라인 학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학교육의 개념을 바꾸는 획기적 변화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요즘 시대에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 평균수명 90세를 바라보는 지금 20대 초반에 얻은 학위증서 하나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가려다가는 세상의 흐름에 뒤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들도 재학생만을 위한 지식 전수 기능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이 강의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잘 가르치기 경쟁’이 붙어 강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외부인을 상대로 한 무료 온라인 강의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일대일 맞춤교육, 취업지원 등 다른 교육서비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서울대가 총동창회(회장 임광수)의 지원을 받아 교수강의 동영상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강의 공개는 질 높은 평생교육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수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공개된 울산대 강의는 인기몰이 중이다. 울산대 홈페이지에는 “대학의 경쟁력은 명성이 아니라 강의 실력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빌 게이츠 재단은 지난주 13개 대학에 모두 300만 달러의 온라인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톨러나 샌델을 능가하는 온라인 스타교수가 한국에서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관악회 이사회서 예산 심의·이사 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도화동 장학빌딩 지하 1층 메이차이 중식당에서 제11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이사장, 孔大植상임이사, 孫一根·李禮植·曹基浩·安聖哲·權永昊·李炯均·朴明潤·金秉順이사, 朴英俊감사가 참석했다.

林光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빌딩은 현재 100% 임대를 완료해 연간 5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등을 제외한 40억원을 모교에 전액 지

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모교와 함께 장학연구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장학연구지원사업비로 14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안건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孫一根·李禮植·趙弼濟·申明珪·安聖哲·李炯均·朴明潤·金炯周이사를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또 본회 부회장인 辛鉉雄 웅진재단 이사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香)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약 15분 동안 공을 들어 스트레칭을 한다. 이때 누운 채로 자전거를 타는 식의 동작을 50회 정도 실시한다.

1주일에 3~4번, 약 2시간씩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라



劉 鐘 海

가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듯하다.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자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가리는 음식이 전혀 없으며, 초콜릿을 즐겨 먹는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의 노화방

● 중국어 공부하며 치매 예방

생각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베푸는 多學·多勞·多施의 ‘3다주의’를 생활신조로 삼아 꾸준히 지켜

지, 고혈압 및 협심증 예방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법학50-54) 연세대 명예교수



특별한 건강법은 아니지만 신체에 부담이 되는 무리를 하지 않고 숙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매주 한 번씩 골프를 하고, 주 4~5회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한다. 주로 30분간 자전거를 탄 뒤 0.9kg 무게의 아령으로



韓 斗 鎭

국생활을 겪으며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먹지만 절대 제왕식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과 식사량을 맞춰 같은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나만의 음주 철칙은 꼭 지킨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벼운 음주는 즐기되 몸에 무리가

● 도수체조 즐겨...폭탄주 “No”

10분에서 15분 정도 도수체조를 즐긴다. 음식의 경우 6·25전쟁과 외

가는 폭탄주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이다. (의학50-56)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대학원동창회

회상기 원고 모집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車)는 10만여 회원 간의 결속을 위해 ‘나의 대학원 시절’이란 회상기를 출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6일 ‘SNU 대학원의 밤’ 행사 때 제작·배포한 가출판 물이 호평을 받아, 원고를 더 수집해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정식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12월 31일까지 A4용지 3매 이내의 수필을 대학원동창회(morninglain@snu.ac.kr / 880-7565)로 보내면 된다.

생활대동창회

‘여성의 네 얼굴’ 특강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11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대 최병오홀에서 한국브라마쿠마리스협회 柳正姬(식품영양73-77)대표의 ‘여성의 네 얼굴’ 공개 특강을 개최했다.

라자요가 명상 강좌 교육자인 柳동문은 이날 강연에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영원한 얼굴, 전통의 얼굴, 현대의 얼굴, 지혜롭고 힘 있는 얼굴’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내적 성장과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공대 극단 실극

‘12 배심원’ 선배

공과대학 연극회 출신 졸업생들이 모여 설립한 극단 실극(회장 李相憲)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동송동 아트센터K 네모극장에서 제10회 정기공연 ‘12 배심원’을 선보였다.

1954년 미국 CBS TV에서 단막극으로 방송된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새롭게 각색한 이번 작

특별기고

미국에는 역대 대통령이 이임할 때 꼭 지켜야 할 전통이 있다고 한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남겨두는 일이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표를 던진다는 뜻의 투표보다는 영어로 ‘바친다’는 뜻의 ‘de-vote’를 떠올리며 진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국민 된 도리가 아닐까.

나라가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기류를 타고 달리기만 하면 되지만, 오늘날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을 때는 침착하게 더 깊이,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어지러워 불안할 때에는 ‘神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찾으려고도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무능한 지도자의 반대말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유능한 프로 정치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금융재정 모임에 나가서 프로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국가적 위협에

처했을 때 프로답게 지휘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현대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앞을 볼 줄 아는 先見力, 정보력, 판단력, 결단력, 실행력, 그리고

체력이라 하지 않았던가.

인간에게는 品度라는 것이 있다. 지도자에게는 품도가 필요하다. 정치가는 대중의 고함소리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또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정치가는 오직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가는 국민의 눈높이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정치의 프로가 국민과 똑같은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지도자는 나라전체를 보아야 하고 국제정세의 추이에 민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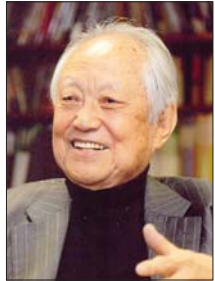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격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국민의 단결력, 경제·기술 방면의 성공, 경제적 안정, 군사력·문화방면의 창조적 磁力이다. 자

력이란 국가의 이념이 얼마만큼 국민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력, 나라의 힘이란 경제력과 외교력의 짜 맞추기라 했다. 국제풍운이 심상치 않은 때일수록 국력이 첫째 순위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리.

선거를 치른 후에 새

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물러나는 대통령 사이에 허물없이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하는 대화의 순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바치리라.

소중한 한 표를 바치리라



金 在 淳
본회 명예회장

품은 편견을 깨뜨린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 과정을 수준 높은 연기로 그려냈다. 극단 관계자는 “72학년부터 99학년까지 폭넓은

세대의 동문들이 배우 및 스태프로 참여해 앞으로 장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대동창회

바둑동호회 총회 열어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바둑동호회 정기총회 및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서울시립대 具相鎭(법학68-72)교수가 바둑동호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단체전과 개인전 A, B조로 나눠 진행된 바둑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17회 동기회 金泰勳(법학59-64)·千仁壽(법학59-63)·洪范基(법학59-63)동문, 준우승 23회 동기회 權泰郁(법학65-70)·金培烈(법학65-69)·劉東洙(법학65-69)동문 ▲A조 : 우승 盧喆鎬(행정60-64)동문, 준우승 朴英郁(공법82-88)동문 ▲B조 : 우승 辛成梧(법학60-64)동문, 준우승 黃仁喆(행정60-64)동문 (載)

제15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금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3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 · 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3년 3월 15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故 吳相洛 학장 흉상 제막

경대원동창회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哲雨)는 지난 11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LG경영관 1층 홀에서 모교 경영대 초대 학장이자 경영대학원 제5대 원장을 역임한 故 吳相洛(경제47-53)동문의 흉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과 고인의 유가족이 참석해 고인의 공로와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흉상 건립은 모교 경영대 崔 燦(경영75-79)학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모교 경영학과 林鍾沅(경영66-70)명예교수가 실무를 총괄하고 중앙대 林松子(조소59-63)명예교수가 제작을 맡았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盧大燮(경대원 86-89)동문이 최우수상, 宋圭政(사학63-67·경대원70졸)동문이 메달리스트를 수상했다.



사대동창회

공로패·감사패 수여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11월 27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유한재단 鄭元植(교육48-54)이사장, 범은장학재단 張忠植(역사교육52임)이사장, 卞柱仙(영어교육60-64)회장, 모교 사대 金鍾旭(지리교육71-75)학장 등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송년회 행사를 개

최했다.

卞柱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金鍾旭학장의 축하가 이어졌다. 또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려 鄭燦謨(체육교육 66-70 단국대 명예교수)·禹龍濟(교육76-83 모교 사대 학생부학장)·蔡賢九(체육교육78-82 개운중 교감)동문에게 공로패를, 宋壽男(체육교육54-58 순천향대 석좌교수)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張忠植이사장이 열창한 격려의 노래를 끝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된 뒤, 鄭元植이사장의 건배 제의

FIP동창회

골프대회서 친목 도모

미래융합기술과정동창회(회장 姜英植)는 지난 10월 19일 충북 음성군 썬밸리CC에서 1~9기 동문으로 구성된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라운드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대회를 위해 韓相基(1기)·李基準(2기)·申相都(3기)·姜英植(4기)·申重九(4기)·金德杓(7기)동문과 4~8기 기수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金基鉉(7기)동문 ▲준우승: 鄭煥三(9기)동문 ▲메달리스트: 尹鎭鎬(4기)동문 ▲통기스트: 李廣顯(7기)동문 ▲니어리스트: 朴희덕(4기)동문 ▲다바디상: 李東哲(1기)동문 ▲다과상: 金承一(3기)동문 ▲다보기상: 禹滌大(7기)동문 ▲노력상: 李信浩(7기)동문

로 2부 행사가 시작됐다. 魚命河(교육행정59-63)·金晚基(교육행정59-63)·吳鍾實(지구과학교육 68-75)동문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한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밤은·청관장학생 9명이 송년회 안내 자원봉사를 맡았다.

GLP동창회

가족동반 등산대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관악산에서 7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3시간여에 걸친 산행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하산 후 이어진 오찬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MC의 진행이 어우러진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기업 탐방·등산대회 개최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0월 25일 4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익산 소재 동양물산기업과 하림 등을 둘러보는 동문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동양물산기업에 도착한 동문들은 동창회 尹汝斗(농공 67-71 동양물산기업 부회장)상임 부회장과 직원들의 안내로 전시장과 농기계 자동생산라인을 돌아봤다. 尹부회장은 동문들에게 동양물산에서 생산되는 트랙터 모형과 골프우산, 금수저 세트 등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진 오후 일정에서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하림을 방문했다. 동문들은 李文鎔(축산69-77)대표의 인사와 소개에 따라 닭고기제품 생산 공정을 관람하고 시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1월 24일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관악산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은 무너미 고개를 넘어 관악수목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등반했다.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李昇九(농화학 66-70)명예교수와 대강양조장 趙在九(임학83-90)대표가 막걸리를 잔조했으며 鄭潤煥회장이 오찬을 제공했다.

AIC동창회

홈커밍데이 행사 가저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10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李世漢회장과 모교 행정대학원 金秉燮원장 등 1백20명의 동문이 참석

한 가운데 제4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11, 12기 동기회가 후원하고 29, 30기 동기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홈커밍데이 기념식을 시작으로 만찬과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종일관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載>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 추천인
 -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 언론단체의 대표
 -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 심사대상 :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a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 추천기한 : 2013년 1월 31일
- 수상자 발표 : 2월 중순
- 시상식 : 2월 정기총회
- 문의 : 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신부님과 스님

신부님과 스님이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신부님이 스님을 놀리려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좀 드셔 보시지요.”

하니 스님이 하는 말, “신부님 결혼 피로연에서 먹기로 하지요.”

허풍쟁이

두 허풍쟁이가 대결을 벌였다. 첫 번째 허풍쟁이가 말했다. “난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황금, 골동품 그리고 모든 땅을 다 사버릴 수 있

어. 세상의 모든 미녀들까지도 다 살 수 있다고.”

듣고 있던 두 번째 허풍쟁이가 대답했다.

“안 팔아!”

돈 많은 남자

남자 : 어떻게 그런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여자 : 네, 두 번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 그래요? 첫눈에 반하진 않았고요?

여자 : 처음 만났을 땐 그 남자가 부자인 줄 몰랐거든요.

(독자제보 환영)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골프대회 및 송년모임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度運)는 지난 11월 15일 50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자카르타 근교 자고라위 골프장에서 하반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저녁 르메르디앙호텔에서 73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진



행된 골프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우승 : 공대팀, 준우승 : 상대팀 ▲개인전 우승 : 許承均

(지구환경시스템공학99-06) 동문, 준우승 : 金在鉉(자원공학80-87)동문, 3위 : 朴成敏(조선해양공학88-94)동문 ▲메달리스트 :

崔亨洵(임학69-73)동문 ▲롱기스트 : 李和洙(경제83-90)동문 ▲니어리스트 : 柳定賢(지구환경시스템공학00-07)동문



임학동문회

동문 강연 및 가을여행

임학동문회(회장 徐承鎭)는 지난 11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산림과학부 세미나실에서 4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동문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임업기술사를 취득하고 전문가로 활동 중인 李壬寧(임학81-88)동문이 강단에 섰다. 李동문은 오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과학부 전공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0월 27~28일 46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모교 남부학술림 백운산 추산시험장 일대를 탐방하는 가을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동문들은 일정 첫날 순천만 일대 탐방에 이어 李榮俊(임학81-85 대현우드 대표)동문이 경영하는 물류센터를 견학한 뒤 학술림으로 이동해 만찬 행사를 가졌다.

이튿날에는 학술림 내 테다나무 조림지, 고로쇠나무 시범림 등을 견학한 뒤 지리산 피아골 계곡을 걸으며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껏 즐겼다.

물리천문학부동창회

총회서 장학금 수여

물리천문학부동창회(회장 金聖中)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역삼동 SC컨벤션강남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金聖中(물리61-65 국제종합물류 대표)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예·결산 심의에 이어 학부 재학생으로 구

성된 밴드 ‘광란’의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펼쳐져 자리에 참석한 동문들의 흥을 돋웠다.

한편 이날 물리학부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열렸다. 대한민국학술원 權肅一(물리54-58)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동창회는 ‘金聖中장학금’을 제정해 후배 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ACAD동창회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제5회 국가정책인의 밤 및 자랑스러운 서울대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금융 부문은 연합캐피탈 李相承(40기)감사, 행정 부문은 새마을운동중앙회 李在昌(44기)회장, 의료 부문은 모교 치대 金

英洙(49기) 명예교수, 언론 부문은 동아일보 崔孟浩(51기)부사장이 수상했다.

한편 동창회는 최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1백여 명의 동문은 25개 팀으로 나뉘어 샷건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鄭宗謨(25기)동문 ▲준우승 : 李憲行(58기)동문 ▲메달리스트 : 南相海(37기)동문 ▲롱기스트 : 昔浩榮(69기)동문 ▲니어리스트 : 金禮式(48기)동문

OB합창단

‘Fall in Jazz’ 공연

모교 OB합창단(지휘 元鍾洙)은 지난 11월 17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0회 정기연주회 ‘Fall in Jazz’를 개최했다.

이날 단원들은 元鍾洙(성악85-89)동문의 지휘 아래 미사곡 ‘A little jazz mass’, 제8회 휘센합창축제 대상 수상작 ‘바람부는 날

에는’, ‘You raise me up’ 등 재즈와 클래식 곡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1992년 제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공연 형식과 레퍼토리를 선보인 OB합창단은 제26회 난파음악제 일반부 합창 부문 대상, 제2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제29회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올해 제8회 휘센합창축제와 제7회 창원전국그랑프리합창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鄭大有 作

빛-97,
Bronze, Stone,
Antimony
Casting,
25×23×40cm,
1997

▲현대미술초대전
▲서울공예대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 디자이너
▲現성신여대 명예교수

▲1961~1967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1975~1979 모교 환경대학원 졸업
▲개인전 3회

SPARC동창회

회장배 골프대회 열어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淳伯)는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플라자CC에서 16개팀 63명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鄭淳伯(17기 위너쿰 대표)회장이 5백만원을 협찬했으며 洪起南(5기 진보공업회장)·河相哲(15기 파카텍스 대표)명예회장, 李杰九(7기 신원코

퍼레이션 회장)고문, 金鍾顯(19기 세크 대표)상임수석부회장, 朴煥熙(20기 아이넷방송 회장)수석부회장, 金昌均(18기 태영기술 대표)부회장이 1백만원 이상을 출연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1위 : 19기 동기회, 2위 : 20기 동기회, 3위 : 17기 동기회 ▲개인 우승 : 李杰九(7기)동문, 준우승 : 申基德(7기)동문 ▲메달리스트 : 鄭吉燮(22기)·姜敬海(20기)동문 ▲롱기스트 : 金榮栽(17기)·徐順玉(6기)동문 <載>

耳順테니스회

全兢烈·李文炯동문 우승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申東澈)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2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팔순조와 이순A, B조의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申東澈회장은 “내년 4월 6일에는 경기 후 캠퍼스 투어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 전한 뒤 “耳順테니스회는 60세 이상의 테니스 동호인 동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며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가입문의 : 申東澈회장 02-576-7750>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팔순조 : 우승 全兢烈(토목공학45-48)·李文炯(약학47-50)동문 ▲이순A조 : 우승 高相睦(상학53-57)·申京鐵(행정64졸)동문, 2위 金潤澤(법학50-58)·李慶佑(체육교육61-65)동문, 3위 黃彩皓(교육심리61-65)·曹鍾守(잠사66-70)동문 ▲이순B조 : 우승 成旭基(경제53-57)·車載浩(심리52-56)동문, 2위 韓榮成(천문기상59-63)·洪明熹(법학55-59)동문, 3위 李昌健(전기공학49-54)·申東澈(화학교육59-63)동문

12.1 월
행사 캘린더

12월 20일(목) 18시
• AMPFRI동창회 송년의 밤
서울 서초동 서초로알프라자 3층 (문의 : 02-742-8863)
12월 21일(금) 18시30분
• 공대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문의 : 02-880-7030)
12월 21일(금) 19시
• 영문학과동창회 송년의 밤
서울 충정로3가 풍산빌딩 대강당 (문의 : 011-788-7968)
12월 27일(목) 20시
• AMP동창회 자선음악회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문의 : 02-880-6912)
1월 8일(화) 17시
• 농생대동창회 신년교례회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문의 : 02-882-8630)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부산지부동창회 安永求회장
(유니크 회장)

올해 초 부산지부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安永求(공업교육65-69)회장은 지난 1년간 동창회 활동을 돌아보며 “아유회, 동문 가족의 밤 등의 모임을 통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평한 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각 단과대학 산하기관의 행사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동창회 산하에는 각 단과대학동창회가 회장, 부회장, 총무의 체제로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관악회, 산행 모임인 관악산우회와 사회친목 활동 모임인 마로니에클럽, 바둑모임인 관악기우회, 신진세대의 사회친목모임인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을 늘려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는 동창회 전체 행사의 경우 연 2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 등의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와 기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2013년에는 사회적인 관심과 기여로써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 고자 합니다.”

- 동창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덕목은.

“큰 부담이나 거창한 명분이 아닌 부지

수의대동창회 李文漢회장
(모교 수의학과 명예교수)

76 한국원종 대표)동문 등 18명의 동문으로부터 부회장 취임 승낙을 받았고, 미국에 거주하는 李炳熙(수의학75-79)동문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결정했습니다.”

- 내년도 중점 사업은.

“전임 李角模회장이 추진하던 주소록 개정 작업과 연회비 소액결제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평생회비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원로 회원님들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밖에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겸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동문과 그 가족까지 초청하는 행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말 못하는 동물에게 仁術을 베풀은 더

수의과대학동창회는 지난 10월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모교 수의학과 李文漢(수의학66-73)명예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李회장은 “앞으로는 젊은 동문들이 앞장서서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체제가 될 것”이라며 “선배 후배 사이를 잘 연결하며 동창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동창회 총무이사로 6년, 수석부회장으

“사회 소외계층 위한 사업 추진”

관악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모임에 회장단이 격려차 참석해 일정금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올 한 해 성과가 있다면.

“지난 10월 21일 영산대학교에서 동창회 전체 모임인 아유회 겸 체육회를 개최했고, 지난 12월 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4백여 동문과 그 가족이 참여한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풍성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매년 4천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보다 알차게 진행하고, 단과대학 산하기관 행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사업 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 각 단과대학과 산하단체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

런히 참여하고 기여하는 일상적인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 성취감을 찾아내고 그것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는 자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주체적인 마음과 관점으로 동창회를 사랑하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부분이나마 돌려주기 위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安회장은 1969년 모교 공업교육과를 졸업한 이래 40년 이상 자동차, 정밀전자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산지부 동창회 부회장, 부산관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에 제24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香)

“연회비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로 6년을 봉사한 경험을 동문들에게 인정받아 회장에 선임된 듯합니다. 중책에 부담을 느꼈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모교 수의대 졸업생 수는 3천26명으로, 원로 회원의 작고 등으로 현재 연락이 가능한 회원 수는 2천4백명 정도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8천5백만원 내외이며 주요 사업으로 모교 지원 및 장학사업, 모교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 회장단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수석부회장에 金建浩(수의학70-74 애농원 대표)동문, 학내부회장으로 權五鏡(수의학71-75 모교 수의학과 교수)동문을 모셨습니다. 이밖에 趙商來(수의학71-75 연세대 교수)·金鍾澤(수의학72-

없는 보람입니다. 더욱이 서울대에서 수의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더없는 축복이며, 그 자체가 동물에 대한 복지, 축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서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유능한 동문 여러분이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모교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李회장은 진주고등학교를 나와 모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모교 수의대 학장을 비롯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대한수의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감사, 한국법과학회 감사, 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모교 수의대 백린교육대상, 한국보건협회 보건대상,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축산·사료연구기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We only think cars
쌍용자동차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수천년 누구도 넘지 못한
빙하를 깨고 길을 여는 쇄빙선처럼

대한민국 눈길을 헤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다

[국내 유일 4륜 구동 대형세단]

시간을 이겨온 명차, 체어맨W



대한민국CEO
CHAIRMAN 

화제의 동문

모교 盧東榮암병원장

모교 병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암병원이 지난해 3월 세분화된 15개 암종별센터와 9개 통합암센터 등 총 26개 센터를 갖춘 외래전문병원 형태로 문을 열었다. 盧東榮(의학75-81)원장은 초대 원장으로서 개원 1년 반 만에 국가경쟁력을 갖춘 암전문병원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암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 친화적 의료 환경 개선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시간내 검사와 진료가 모두 가능토록 하는 ‘원스톱 토탈 케어’ 서비스와 단기입원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盧원장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과 검사를 받으려면 며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지만 우리는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환자들에게 원스톱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 및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병원은 대부분 입원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지만 우리는 획기적으로 단기입원을 원칙으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여



외래중심·환자 친화적 의료 환경 구축 24시간내 ‘원스톱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

러 가지 수익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든 만족도가 높아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든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문화로 힐링되는 행복 공간

이 외에도 암병원은 3층 내 암정보교육센터를 마련해 70가지 이상의 암종별 의학정보와 통합암관리 정보,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정보를 스마트 도우미·리플렛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암병원은 중증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으

로써 그들에게 작은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盧원장의 뜻에 따라 병원 곳곳에 다양한 그림 및 조각 작품을 배치한 것은 물론 정기적인 음악회 및 전시회를 열고 있다.

멋진 조각 전시품과 작은 컴퓨터 마련돼 있는 6층의 행복정원은 무엇보다 창경궁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조망 덕에 환자는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개원과 동시에 시작된 전시회 및 음악회는 어느덧 30회를 넘기고 있는 대표적 문화행사로 꼽힌다.

盧원장은 “이는 개원 이전부터 모교 음악대학 및 미술대학과 교류를 통해 진행되

고 있는 문화행사”라며 “병원은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좋고,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盧원장은 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금연·절주·335’가 그것이다. ‘335’란 암 예방을 위한 영양·운동·체중에 관한 지침으로 하루 3기 균형 잡힌 식사와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씩 일주일 5번 시

행하는 것이다. 끝으로 과체중·비만예방을 위해 체질량지수 23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그는 “암은 최근 남성 3명당 1명, 여성은 5명당 2명꼴로 걸릴 만큼 보편화됐지만,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인 동시에 치유될 수 있다는 개념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암치료 성적은 세계 선두권이며, 어떤 맥락에서는 암도 일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방건강재단 이사장도 맡아

지난 9월 한국유방건강재단은 盧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盧원장은 유방암 수술방법인 감시립프절 생검술의 장기적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는 등 국내 유방암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재단 설립 때부터 이사로서 핑크리본캠페인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며 재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盧원장은 “지난 12년간 핑크리본캠페인, 5개 도시 마라톤대회 등을 통해 재단 및 유방암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여성을 위해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후원 아래 설립, 현재 건강관련 가장 성공적인 재단으로 꼽히고 있다. 〈香〉

소설가 鄭泳文동문

올해 우리나라 문학계에는 사상 초유의 ‘그랜드슬램’을 이룬 작가가 탄생했다. 한 명의 작가가 쓴 한 편의 작품이 지난 1월 한무숙문학상, 10월의 동인문학상에 이어 대산문화재단이 선정한 대산문학상까지 모두 휩쓴 것이다. 수상작 ‘어떤 작위의 세계’로 우리 문학 역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주인공은, 등단 이후 오랜 세월 이어진 세상의 외면을 묵묵히 감내하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온 소설가 鄭泳文(심리83-91)동문이다.

鄭동문은 기존 소설이 가지는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를 버리고, 간결하고 윤택 있는 문장으로 삶의 궁극적 무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문단과 세상의 뒤늦은 관심과 호평에 대해 “너무 뒤늦었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런 감정들은 없어졌다”며 “늦게나마 지금까지 이룬 문학적 성취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이야기 자체의 즐거움·재미 추구

‘어떤 작위의 세계’는 鄭동문이 2010년 봄과 여름 두 계절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지 소설 속 허구적 존재로 읽히기도 한다. 또한 소설 속 이야기들은 화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鄭동문



기존소설 서사 탈피 독창적 화법 구사 ‘어떤 작위의 세계’로 3개 문학상 휩쓸어

은 이와 같은 독특한 구성에 대해 “전통적인 소설이 익숙한 독자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것”이라며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이야기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재미를 구하려 한다면 이 소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산문학상 심사위원회가 “非서사 소설의 진경을 보여주며 새로운 경지와 발화 지점에 이르렀다”고 선정 이유를 밝힌 것처럼, 鄭동문의 작품들은 기존의 소설이 따르는 플롯의 형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문단의 평을 수긍하며 “세계를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은 인과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구의 문학사에서는 전통적인 소설의 역사만큼이나 그런 전통적 서사를 해체하는 소설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서사를 해체하는 소설의 역사가 너무 일천하다”고 전했다.

鄭동문은 기승전결이라는 낡은 구도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 카프카와 베케트, 이상과 김수영을 좋아했던 鄭동문은 자신이 좋아한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남들과는 다른 방식의 언어로 소설을 쓰고자 한다. 그는 “시장성의

문제, 즉 독자 대중의 취향 때문에 더 많은 작가들이 실험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계속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대중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소설을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문학세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수단’ 번역이 소설 공부 도와

鄭동문은 1996년 장편소설 ‘겨우 존재하는 인간’으로 등단한 후 16년간 총 12권의 장편과 소설집을 썼지만, 인세 수입

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긴 세월 동안 鄭동문은 소설 집필 외에 외국소설의 번역을 생계수단으로 삼았고, 그 덕분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번역가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그는 “생계수단으로 시작한 번역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사하고 다루는 법을 배웠다”며 “1차적으로는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설을 쓸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우연히 프로이트를 읽은 후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을 느껴 모교 심리학과에 진학한 鄭동문은 재학 중에 심리학보다 문학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돼 문학도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인간의 마음을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심리학보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학이 오히려 더 ‘심리학적’이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공상하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머릿속 생각들 때문에 오랜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鄭동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주는 가능성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아주 허무맹랑하고 관참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운을 떼고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앞서나갈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할 것”이라며 상상과 문학의 필요성에 대해 힘줘 말했다. 〈載〉

화제의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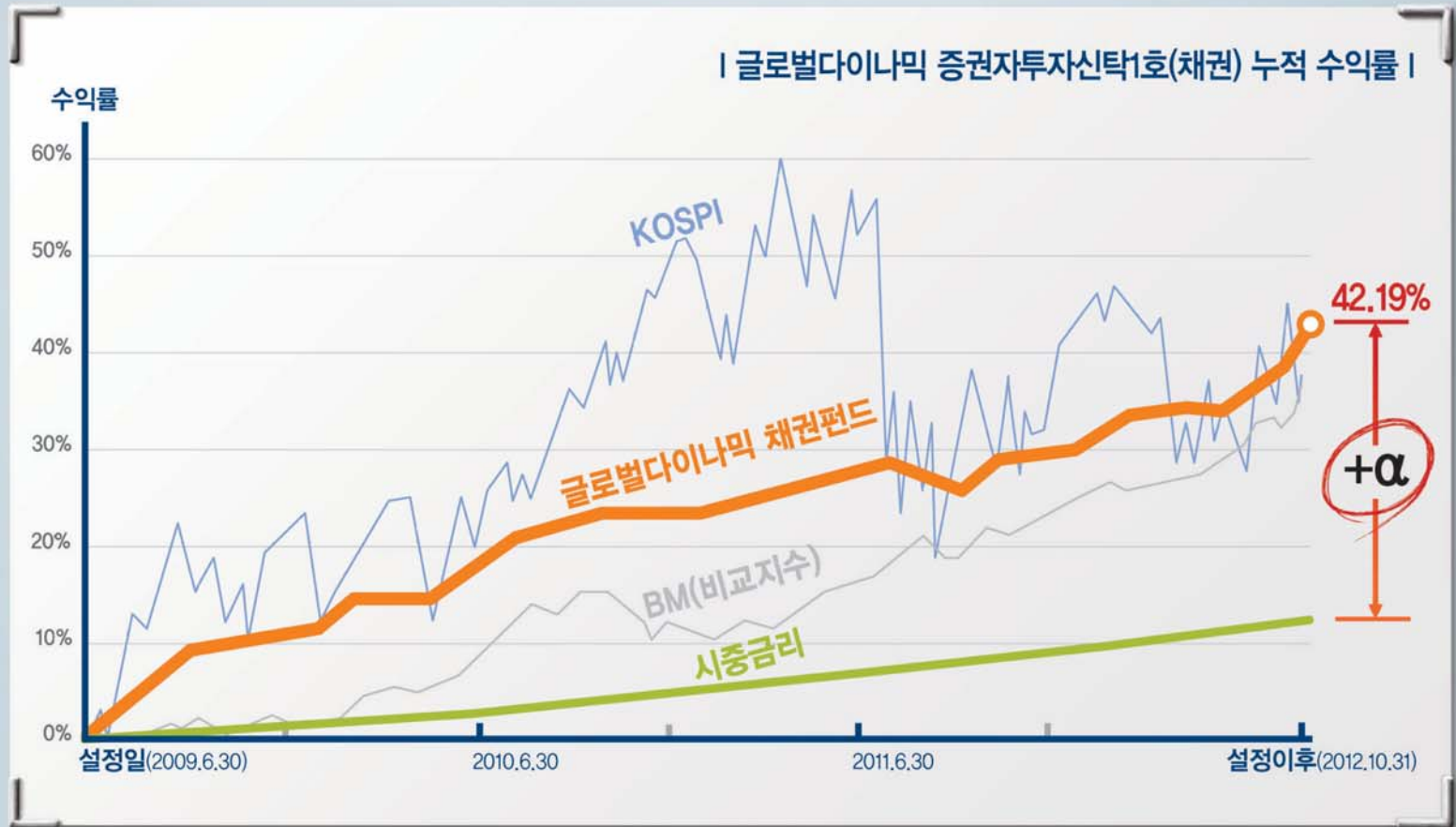
투자 전문가의 은퇴준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채권펀드

채권형펀드
수탁고 1위
6조 7,390억원
(출처:금융투자협회, 2012.10.31 기준)

시중금리 + α 추구!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채권펀드,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플러스 채권펀드가 좋은 이유

- ① 하이일드 채권에 비해 안정을 추구합니다
- ② *누적 수익률 42.19%! 시중금리 + α 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③ 전세계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합니다

*글로벌다이나믹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수익률 (세전기준)

	6개월	1년	3년	설정이후 (3년3개월경과)
글로벌다이나믹 채권펀드	5.78%	10.67%	29.22%	42.19%
BM(비교지수)	7.15%	12.54%	34.65%	35.99%
KOSPI	-3.84%	-1.55%	20.17%	37.55%

■ 기준일: 2012.10.31 ■ 순자산: 5,312억 ■ 출처: 제로인, 미래에셋자산운용 ■ BM지수: JP Morgan Global Government Bond Index (50%)+JP Morgan Asia Credit Index Sovereign (50%)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환매방법 제3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7영업일에 환매 대금 지급 * () 17 시 경과 후 환매 신청시 적용 선회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종류A) 환매수수료 : 종류A : 없음, 종류C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총보수 종류A : 연 0.66%(운용 0.30%, 판매 0.30%, 수탁 0.04%, 사무수탁 0.02%), 종류C : 연 0.80% (운용 0.30%, 판매 0.44%, 수탁 0.04%, 사무수탁 0.02%)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환매방법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7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이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7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선회판매수수료 종류A : 납입금액의 0.7% 이내, 종류A-e : 납입금액의 0.49% 이내, 종류C : 없음 환매수수료 종류A, 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총보수 종류A : 연0.86%(운용 0.30%, 판매 0.50%, 수탁 0.04%, 사무수탁 0.02%), 종류A-e : 연0.71%(운용 0.30%, 판매 0.35%, 수탁 0.04%, 사무수탁 0.02%), 종류C : 연1.21%(운용 0.30%, 판매 0.85%, 수탁 0.04%, 사무수탁 0.02%)



신규 가입자를 위한 + α 이벤트!

11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1등: LG 디오스 V9100 냉장고 (2명) 2등: 갤럭시노트 10.1 Wifi (5명)
3등: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만 (50명) 4등: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만 (500명)

*행사판매처가 상품판매처와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2-7569호 (2012.11.5~2012.11.30)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써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동양 할리우드 형성의 한 축 담당하겠다”

동문특 찾아서

SM엔터테인먼트 李秀滿 회장

2000년대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바람’이 이제 유럽은 물론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으로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등 수많은 한류가수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자리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李秀滿(농공학71-78) 회장은 “이른 시일 내 동양의 할리우드가 형성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朴聖姬(세명대 초빙교수)논설위원



–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자랑스러운 경복인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어린 아이들이 뭐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가족과 같은 고등학교에서 칭찬해주는 것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연예인들이 요즘 해외에서 활동하며 사랑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칭찬해 준다면 그들이 더 기운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수로 시작해 MC, 기획사 운영자로 계속 변신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대학시절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 유학을 준비했지요. 언론 통폐합으로 TBC(동양방송)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 주저하지 않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었어요. 당시 미국에 가 보니 많은 것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인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문화예술품을 보는 눈이 우리와 굉장히 다르더군요. 우리나라도 잘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발달하겠구나 싶었습니다. IT산업 진출을 목표로 유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1985년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1989년 SM기획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 한류 얘기를 하자면 보아(BoA)씨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데뷔하고 일본에 진출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처럼 어린 나이의 가수를 키울 생각을 하셨나요.

“보아 이전에 H.O.T.가 중국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어요. 그 때 ‘일본에도 한 번 도전해보자’라는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S.E.S.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일본에서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유를 살펴보니 당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일본 젊은층의 음악은 ‘1315’, ‘1618’이란 하나의 공식이 성립돼 있었습니.”

– ‘1315’, ‘1618’ 공식은 뭔가요.

“13~15세에 데뷔시켜 16~18세면 스타로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걸 알고 저도 가능성 있는 인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

게 됐고 보아를 발굴한 것이지요. 당시 보아는 만 10살이었어요. 3년간 트레이닝하는 동안 일본어 공부를 위해 일본 현지 아나운서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4세에 국내에서 먼저 데뷔한 후 15세에 일본으로 진출, 결국 17세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지요. 보아의 노래가 일본 가요계에서 1등을 한 후 일본 내에서 보아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그러자 재일교포 등 현지



한했을 때 갑았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중국 주요 신문들이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관련 기사를 실을 정도였어요.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 중국 진출에 앞서 4년 동안 홍보에 집중하며 H.O.T.라는 그룹을 중국에 알린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시도였는데.

“미국 유학 시절에 보니 우리나라 음악을 비롯한 아시아의 음악은 너무 뒤쳐져 있었어

•李회장은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나 모교 농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주)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수많은 가수들을 끊임없이 양성하며 세계 각국에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제1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공헌상’과 6월 미국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55주년 기념만찬에서 ‘문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0년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인물로 초청받아 특별 강연을 했으며, 201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스탠포드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류 비즈니스 전략’ 강연을 진행했다.

‘Culture Technology’ 능력 중요 스타 육성 공식… ‘1315·1618’

한국인들이 보아 덕에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해 뿌듯했습니다. H.O.T.와 보아 이후 최근에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등의 가수들이 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보아에 앞서 H.O.T.가 중국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00년 2월 H.O.T.가 중국에서 공연할 때의 반응은 1970년대에 클리프 리처드가 네

요, 새로운 댄스 음악이 필요하더 여겼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 팝스타에 열광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해외로 진출하는 가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끝에 결성한 것이 H.O.T.입니다. 다만 일본은 일찍이 경제대국으로 성장, 우리보다 문화가 앞서 있어 중국을 타깃으로 했지요. 경험이 없어 라디오와 한인방송에 음악을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차츰 인지도를 쌓아 현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공연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요 한류의 시초죠.”

–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SM타운의 공연을 연장해 달라는 플래시몹이 열려 화제가 됐는데.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파리 시민들이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여달라고 대규모 플래시몹, 일종의 시위를 한다는 사실에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국민적으로 엄청난 자긍심을 갖게 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랑스에서의 공연 계획은 없었어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파리 공연이 커진 것은 당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崔曉皓 원장(現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노력 덕입니다. 당초 1~2팀의 공연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崔원장께서 현지 팬들 사이에 ‘SM타운 탐이 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계속 요청하셨어요. 그 열성에 감복해 SM타운 공연을 열었는데, 1회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면서 2회로 늘려달라는 팬들의 요구가 결국 대규모 플래시몹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 미국, 유럽 등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프로듀싱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조만간 중국에 동양의 할리우드가 생길 것이라 본다면 그곳의 바탕을 우리나라 회사와 프로듀싱 능력으로 상당 부분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힘을 저 CT(Culture Technology)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할리우드가 만들어졌을 때 프랑스의 자본과 영국의 프로듀서가 투입된 것처럼 우리도 서둘러 중국 시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나라 가수가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 지금의 시스템만 고집해서도 안 되구요. 지금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CT를 통해 다른 나라 가수들이 노래하고 작품을 만들어 유명해지도록 해 우리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프로듀서 및 프로듀싱 시스템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 본인의 노래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뭔가요.

“최근 제가 출연한 모 증권사 광고에 등장하는 ‘행복’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만든 곡인데다 가사도 좋아 애착이 갑니다.”

–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자녀를 둔 동문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시대가 먹고사는 데 급급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척도 역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나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일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건 결국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요.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하거든 우리 같은 기획사에 먼저 보내세요. 테스트를 받아보면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조건 막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진= 朴新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Since 1984 / 미국 A.T.S사와 기술 제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Burj Khalifa에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가 함께 했습니다.

조인트 유창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Thermal, Sway, Shortening, Seismic 등,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변위를 해결하고, 안전한
배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
음용수 배관시공



150층 설치

■ 인증보유 현황



- U.L 인증(SLIP, BALL, MULTI JOINT)
- 정부품질 성능인증서(EPC-중소기업청)
- 정부우수제품지정증서(조달청)
-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서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 한국선급협회 형식승인 인증



18층 설치



3층 횡주관 설치

■ 조인트유창의 주요 생산제품

플랜트용



Spare Pak Slip Joint

Spare Pak Ball Joint

Spare Pak Multi Joint
(초고온, 고압용 LS NIKKO 적용)

Dual Pak Underground Slip Joint

빌딩용



Dual Pocket Multi Joint

Dual Pocket Slip Joint

Integral Spare Pak Slip Joint

Integral Spare Pak Ball Joint

Vico Joint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
www.ycvalve.co.kr

본사/공장 : 415-86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317-14

TEL : 031)988-9205~7 FAX : 031)988-9208

부설연구소 :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 빌라트 II 1201호

TEL : 02)2081-1970~7 FAX : 02)2081-1978



제2회 체육인의 밤

선후배간 멘토링의 장 펼쳐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11월 22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제2회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모교 운동부 재학생과 체육 관련 동문들의 교류 및 친목은 물론 체육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본회 林光洙

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 부회장,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체육교육과 林繁藏 명예교수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邊昌九교육부총장은 환영사에서 “모교 학생들은 33개의 운동부를 통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협동정신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기르고 있다”며 “체육인의 밤 행사가 동문 선후배간 상생을 위한 멘토링 관계 구축의 대표적 성공 사



金善振교수·林光洙회장

례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여러 동문들의 큰 관심 속에 열리는 이번 행사가 모교 운동부 및 체육 관련 동문을 함께 아우르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 서울대학교의 체육인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모교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기일층 노력을 주기를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모교 체육교육과 金善振(체육교육77-81)교수가 올해 운동부 활동에 대해 보고했으며 모범 운동부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본회는 모교 운동부에 8백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원했으며 앞으로 운동부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만찬과 함께 모교 운동부 소개 영상이 상영됐으며 무용부에서 진도복춤, 댄스스포츠부에서 라틴세부예를 선보여 동문들의 큰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경품추첨 행사가 진행돼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載)



제8회 교육상·제5회 학술연구상

철학과 金南斗교수 등 9명 수상

모교는 지난 11월 6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에서 ‘서울대 교육상·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상 수상자는 철학과 金南斗(철학66-70)교수, 법학부 朴峻(법학73-77)교수, 물리전문학부 劉載俊(물리80-84)교수, 기계항공공학부 安成勳교수 등 4명이다.

학술연구상은 국사학과 盧泰敦(사학67-71)교수, 생화학교실 徐廷瑄(의학70-76)교수, 법학부 崔秉祚(법학71-75)교수, 기계항공공학부 崔萬秀(기계공학76-80)교수, 물리전문학부 金大植(물리81-85)교수 등 5명이 수상했다.

올해 8회째인 교육상 수상자는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한 교수를 선정하며, 2008년 제정된 학술연구상은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에게 수여한다.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교육상과 학술연구상은 모교의 존재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신 분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존경의 표시”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교육 이념 및 연구 의지를 확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邊昌九교육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洪起玄교무처장, 李在影학생처장, 成老鉉연구처장 등과 보직교수, 재학생 및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아시아 대표 14개 대학 참석

모교는 지난 11월 1~3일 관악캠퍼스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제18회 총회와 제3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7개 회원 대학 중 모교를 비롯해 도쿄대, 베이징대, 홍콩과기대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14개 대학이 참여했다.

11월 2일 열린 총회에서 유럽연구중심대학협의회(LERU)와의 협

력, 학부 교육의 강화, AERAU 향후 방향 특히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 도출과 단과대학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吳然天총장은 환영사에서 “아시아의 중심권 대학들이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통해 정치인, 기업인이 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형성을 주도하고 상호번영을 위한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음악대학

오페라 ‘라 보엠’ 성황

음악대학(학장 金永旭)이 주최한 제27회 정기오페라 ‘라 보엠(La Bohème)’ 공연이 지난 11월 8~10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모교 발전기금이 후원하고 오페라연구소가 주관해 무료로 열린 이번 공연은 SNU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성악과 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했다.

이번 공연의 예술총감독은 모교 성악과 朴世源(성악66-72)교수, 오케스트라 지휘는 모교 작곡과 金德基교수와 서울종합예술학교 김현수(작곡95-99)교수가 맡았으며, 합창지휘는 성악과 尹賢珠(성악67-71)교수, 연출은 오페라연구소 이경재(성악93-97)동문이 담당했다.

음악대학은 개교기념일을 기념해 격년으로 정기오페라 공연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의 실력이 기성 오페라단과 견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대학

졸업전시회 열어

미술대학(학장 李舜鍾)은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과 미술대학에서 ‘2012학년도 졸업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학사 1백4명, 석·박사 28명의 학생들이 조각 및 회화 작품을 출품했다.

지난 4일 미술관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洪起玄교무처장, 李在影학생처장, 成老鉉연구처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학장 등 2백5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전시회는 미술대학 졸업 대상자와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작품을 통해 그동안의 실력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총동창회장배 동문 야구대회

16개팀 출전...행정대학원팀 우승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는 제18회 총동창회배 동문 야구대회가 열렸다.

16개팀 3백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행정대학원 미래클리프(사진)가 기술경영정책대학원 TEMEP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모교 야구부 李在昊(고교미술09입)주장은 “높은 관심과 달리 열

악한 모교 야구장으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이어질 야구대회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더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상임위원 金善振 체육교육77-81)는 동문 간 화합 고취를 위해 매년 동문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회에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香)

SNU 희망장학금 “희망은 계속돼야 합니다”

모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NU 희망장학금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장학금 사용 용도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 전액 등록금 면제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매월 생활비 지급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해외수학비용 지원
- ※ 가계소득 5분위 이하란? 환산소득 연 4천2백43만원 이하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기준)

희망장학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 ◆온라인 약정: www.snu.or.kr
- ◆전화참여: 02)880-8004, 02)871-8146
- ◆ARS 후원 060-700-8004(1통당 5천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吳然天



裴永洙인문대 학장, 李俊植연구부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본회 林光洙회장, 孫章純동문, 姜玉彩여사,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昌雨발전기금 부이사장, 趙弘植법대 교무부학장

제5회 발전공로상 수여

姜玉彩여사·孫章純동문 수상

모교는 지난 12월 5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1층 본회의실에서 제5회 발전공로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故 盧炳秀(공법83-87 前 연원투자개발 전무)동문의 모친인 연원투자개발 姜玉彩대표, 소설가 孫章純(불문54-58)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두 분 수상자의 뜻을 배우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자리”라며 “모교 구성원들이 먼저 그 뜻을 받들고 지켜나가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교가 마땅히 맡아야 할 사명”이라며 “이러한 뜻에서 오늘 발전공로상을 수상하는 두 분이야말로 우리 동문 가족의 표상”이라고 강조했다.

姜玉彩대표는 신장병으로 작고한 故 盧炳秀동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모교에 10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고 ‘노병수 장학기금’을 설립해 어려운 형편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孫章純동문은 모교의 문화연구 진흥을 위한 ‘손장순 문학연구기금’ 20억원을 쾌척해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등 보직교수와 수상자 가족, 각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병원과 협력관계 구축

모교 병원

모교 병원(병원장 丁憲源)과 경찰병원(병원장 金寧中)은 지난 11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모교 병원과 경찰병원은 진료의뢰 환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의학정보를 교환하며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를 상호 제공하고,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지원 협력 등의 협약을 맺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丁憲源병원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양 기관이 국민의 신뢰구축 그리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며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중심 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국제 영향력 평가 56위

경영대학(학장 崔 懋)이 세계 비즈니스스쿨 평가 전문기관인 에듀니버설(Eduuniversal)에서 시행한 비즈니스스쿨의 국제 영향력 평가에서 글로벌 56위에 선정됐다.

경영대학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3백24표를 획득해 세계 56위에 자리매김했다.

경영대학은 2008년 에듀니버설 비즈니스스쿨 랭킹이 시작한 이후 매년 1백위 안에 선정돼 유니버설 비즈니스스쿨(Universal Business School)그룹에 속해있다. 2012년 세계 비즈니스스쿨 전체 순위 1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버드대가 차지했으며, 런던비즈니스스쿨이 그 뒤를 이었다.

약학대학

첫 ‘朱重光학술연구상’



약학대학(학장 鄭鎭浩)은 미국 조지아대 朱重光(약학64졸)교수의 국내외 약학 및

신약개발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담아 ‘朱重光 Lecture-ship Award’를 제정하고, 제1회 시상식 및 강연회를 지난 11월 22일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상은 약학 및 신약개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국내외 한국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첫 번째 수상자로 생명과학부 鄭鍾卿(약학81-85)교수(사진)가 선정됐다. (香)

관악캠퍼스서 ‘감사의 밤’ 개최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은 지난 11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해동학술문화관 다목적학술문화실에서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李愚日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과대학은 명실상부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공대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모교를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

다고 생각한다”며 “총동창회 역시 모교가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尹友錫공대동창회장은 “후배들이 세계화된 인재가 돼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인프라와 연구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유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교류를 위한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SK 건설 SK D&D

통합 비즈니스 인프라의 압도적 파워-
[성공 비즈니스는 이제 당산으로 통한다!]

양화대교 선유도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여의도

2·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350m

당산서중교/당산초교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500m

www.dssk.co.kr

www.dssk.co.kr

당산 SK V1center란?

비전, 교통, 스케일, 디자인, 브랜드 등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No.1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압도적 파워를 발휘하는 신개념의 4세대 지식산업센터를 의미합니다.

현장 및 홍보관

현장: 당산 SK V1center

홍보관: 현장 내에 위치합니다

Vision · Value · Victory No.1

당산 SK V1center

시행·시공 SK 건설 SK D&D 문의 02)2635-0009

- 본 광고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 및 허가상의 문제로 인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개발·영업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홍보관으로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상기 지보설명의 가리는 내야비 지도 관제기준을 적용한 거리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록연구·학술·교육상 시상

농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대학(학장 李鶴來)은 지난 11월 13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제20회 상록연구대상, 제12회 학술상, 제10회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록연구대상 수상자에 산림과학부 李銓濟(임산가공70-74) 교수, 학술상 수상자에 농생명공학부 韓在容(축산80-84) 교수, 교육상 수상자에 조정지역시스템공학부 李政宰(농공69-73) 교수

가 각각 선정됐다.

상록연구대상은 1991년 농생대 동창회 韓仁圭(축산52-56 모교 명예교수)前회장이 농생대 교육연

구재단에 출연한 2억원으로 제정해 농생명과학 분야 연구·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제정된 학술상과 교육상은 연구논문 및 저술 업적이 탁월한 교수와 후진 양성 및 교육 활동에서 뛰어난 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洪起玄교무처장, 邊昌九교육부총장, 李政宰교수, 韓仁圭명예교수, 李銓濟교수, 韓在容교수, 李鶴來학장

LG상사·삼탄과 MOU 인도네시아 인재 육성

모교는 지난 10월 29일 (주)LG상사(사장 河英鳳) 및 (주)삼탄(부회장 姜台煥)과 인도네시아의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금 MOU를 체결했다.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吳然天총장, 洪起玄교무처장, 南益鉉기획처장, 공대 에너지지원공학과 姜周明교수 등과 LG상사 宋致浩전무 및 삼탄 이창훈 전무, 최병현 상무 등 기업대표가 참석했다.

향후 LG상사와 삼탄은 각각 모교에 입학하는 인도네시아 학생 2명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교는 이번 장학금 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 및 선도적 학문기초 창출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동국대 약대 千文字학장 신약개발센터 기금 출연



지난 11월 1일 동국대 약학대학 千文字(약학61-65)학장(사진右)이 모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축을 위해 1억원을 출연했다.

千학장은 모교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 약학대학 학장, 발전위원회 협력위원 등을 지냈으며, 올해부터 약학대학동창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현재 모교 명예교수, 동국대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는 千학장은 지난 6월 아시아의약화학연맹(AFMC)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관악캠퍼스 CJ국제관에 한·페루 협력센터 개소

모교 국제협력본부와 지식경제부는 협력 사업으로 관악캠퍼스에 '서울대 한·페루 경제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1월 12일 CJ국제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국제협력본부는 “동 센터가 향후 한국과 페루 및 중남미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서울대 학생들의 글로벌 사회 공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페루대사관의 Eduardo Castaneda 대리대사는 “동 센터가 설립된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축하했다.

한·페루 경제협력센터는 글로벌 사회공헌센터가 완공되는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香>

재학생의 소리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20주년 됐어요”



曹秀榮 (간호10입) SNUPO 회장

모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SNUPO(Seoul National University Philharmonic Orchestra)는 1992년 봄에 '서울대학교 악우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단됐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1번의 정기연주회를 문화관에서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봄 4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프로 바이올리니스트 민유경씨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서울대 합창단과 함께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무대에 올려 SNUPO 창단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매 학기 개강 첫째 주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SNUPO 연주회는 클래식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짧은 서곡과 독주자와 함께 하는 협주곡을, 2부에서는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등으로 이뤄진 현악기 파트와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플루트 등으로 이뤄진 목관악기 파트,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 등 금관악기 파트로 나뉘어 연습을 진행합니다.

정기연주회 준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방학 때 피아노 동아리 SNUPIA와 함께 앙상블을 열고, 연말 가요 시상식에 초청을 받아 연주한 적도 있습니다. 종종 관악구경·공원·병원 등 여러 장소에서

음악 연주를 통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SNUPO는 음악을 좋아하고 무대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악기 연주 실력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여 진지하게 연습하고 연주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엮어내는 조화로움과 진지하게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간다는 즐거움이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하는 이유입니다.

클래식, 특히 클래식 연주라는 것이 '가까이하기 어렵고, 소수의 전문가들을 위한 문화'라는 고정관념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문화'라는 생각을 심는데에 공헌하고 싶고, 호흡이 하나가 되는 진지함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성문화산업사

카드로그 · 전단지 · 칼라명함 · 스티커 · 각종모든 인쇄물 제작

특수라벨인쇄
제조업체



대표 안 성 희

(SPARC.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015)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64-13

TEL : 051-305-1058

FAX : 051-305-1059

H·P : 010-9393-5297



Je T'aime Promotion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에서 아름다운 만찬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선물하세요



대 상 2013년 1 ~ 3월 예식 고객 (하객 250명 이상)

특 전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 로맨틱 디너
테이블 플라워 & 캔들 데코 및 꽃다발
프로포즈 당일 예비신부 리무진 픽업 서비스

정수기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역삼투압 정수기가 사람잡는다.’** 손상대지음:서영퍼냄]과 함께, 지난 4월27일 울산MBC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워터시크릿:미네랄의 역설’** 방송 이후 **“한우물정수기도 역삼투압 정수기가 아니냐?”** 는 소비자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우물’은 지난 26년간 한결같이 소비자를 위해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온 **‘전기(분해식)정수기’**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립니다.



[전기(분해식)정수기]

**「한우물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1. **「한우물」물..... 참으로 「맛」이 있습니다.**

- 차·커피 등 음식 맛을 아주 좋게하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며,
「다른 물을 먹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미지근 해도 맛이 있는 물입니다.

2. **「한우물」물..... 아주 「좋은 물」 입니다.**

- **FDA** (미연방식품의약국)에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등록되었습니다.

**(26년 동안 영업조직이 없이 주로 입소문으로
보급되어 온 것에 대하여 다들 놀라워 합니다.)**

전화상담만 받아보셔도 물 맛이 뛰어난 한우물의
전해알칼리수(500mlX6병)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한우물

판매원 (주)대정유통
www.hanumul.co.kr

1588-4804

콩트 릴레이

‘건축학 개론’의 추억

朴 聖 勳(정치69-73)수필가



금년에 상영한 한국 영화 중에 ‘건축학 개론’이라고 있다. 단기간에 관람객수 4백만을 넘었다니까 화제가 될 만도 하다. 제 목만 보면 무슨 집짓는 기술을 배우는 내용인가 하겠지만, 추억 속에 숨겨둔 대학생 시절의 가슴 설레던 첫사랑 이야기이다.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꼭 헤어지고 마는 것일까. 미숙해서 그럴까. 아니면 사랑이란 그저 일장춘몽의 몽환인가.

누구나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과 이루지

못하듯길의 교통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다행히 학교 정문 주변에 작은 촌락이 있어서 나 같은 지방출신들은 아예 이곳에서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이 외딴 마을에 밤이 오면 캠퍼스는 어둠에 싸이고 과수원은 교묘한 적막강산이 됐다. 학생들은 시내로 과외지도 아르바이트를 나가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집 저집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마시며 청춘의 고독을 달랬다.

낮설은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황

을 앓고 있었다. 처음 차를 타면 생기는 멀미 비슷한 증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통금 직전, 입학 후에 같은 과 친구로 새로 사귄 우석이 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 거의 실신하다시피 내 하숙방에 찾아왔다. 손에는 도라지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도수 높은 술도 따듯한 위로의 말도 그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날 밤을 꼬박 눈물로 지새운 그 친구는 이튿날 아침에야 겨우 진정이 돼 안암동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내 친구 우석이를 절망에 빠뜨린 짝사랑 사건, 그 즐거리는 대체로 이렇다.

우석이는 유복한 집안의 4형제 중 둘째로 자라 성품이 온유한 서울내기이다. 인행이 진실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다. 다소 소심하고 말수가 적어 여간해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아 나이에 비해 너무 점잖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이러한 속 깊은 우석이가 언제부터인지 같은 반에 있는 불어불문학과와 봉연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상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상대방은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는 반면에

내 자신은 너무나 작게 느껴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때문에 쉽게 비탄과 절망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만나도 말 한마디 못 붙이고 마음만 태우던 우석이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기로 작심을 했다. 이때로는 속병이 될 것만 같아서 이관사판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의외로 결판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오는 법이다.

캠퍼스에 봉연을 닮은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4월 어느 날, 우석이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요일을 골라 미리 학교 앞 신작로 버스 정류장에 나가 봉연이를 기다렸다. 한낮이라 아직 하

교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거사하기엔 매우 유리했다. 하늘이 우석의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돕는 것 같았다. 휴먼지를 날리며 버스가 이내 도착했다. 학생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줄지어 차에 올랐다. 우석은 다소 긴장했지만 봉연의 뒤통에 조금 떨어져 모는 척 태연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만원 버스는 한참을 달려 청량리 로터리에 이르자 승객은 반이 내렸다. 곧 이어서 신설동 로터리에 이르렀지만 평소 여기에서 버스를 갈아타던 우석이는 내리지 않았다. 오늘은 초지일관 꼭 결판을 내리라 다짐했다. 동대문을 지나 종로로 접어들자 버스에 서있는 승객은 몇 명 남지 않았다. 이 때 즈음에는 봉연이도 급우 한 녀석이 자기를 줄곧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종점이 서울역인 이 버스를 봉연이 끝까지 타고 가는 이유는 집이 청파동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우석이 알고 있는 정보였다. 결단의 시점은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봉연이도 숨을 죽이고 상대방을 몰래 관측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는 이미 시청 앞을 지나고 남대

문을 돌아 서울역이 점점 시야에 들어왔다.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타고 왔다.

문득 우석은 봉연이가 집이 너무 멀어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해 주고 싶었다. 멋지게 하려면 맨 처음 뭐라고 말을 건넬까. 준비했던 단어들이 순서를 다투다가 그만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목구멍에 침이 마르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심장에서 시계소리가 들렸다. 지금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오늘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결심이 서자 우석은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으며 뒤통에 있던 봉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색하고 수줍은 미소로 봉연을 향해 수작을 건넰었다.

“봉연씨는… 집이… 머나요?”

“……?”

무슨 말이 나올지 잔뜩 긴장했던 봉연은 느닷없이 김빠지는 질문에 그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 기나긴 신경전 끝에 겨우 이것이 질문이라니, 우석은 봉연의 실소에 그만 다음 건넨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기가 막혔다. 봉연을 따라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살아갈 희망도 날아가 버렸다.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다.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그는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서울역 광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다. 정신이 아득했다. 오고가는 사람들은 모두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지나가던 행인 중에는 동전을 놓고 가는 착한 사람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날이 어두워지자 정신을 차려 친구라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은 가엾게도 낮에 갔던 멀고먼 길을 되짚어 늦은 밤 나에게 찾아왔던 것이었다.

우석은 그 사건 후로 사람이 변했다. 고개를 들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과묵한 그가 더욱 말수가 줄어들어 마음의 상처가 심각했음을 짐작케 했다. 다소 허무주의적인 면을 보이던 그는 반체제 시위가 있을 때에는 학교 앞 자갈길 신작로에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도 치열한 투사로 변해갔다. 그것은 독재정권을 향한 민주화투쟁이라기보다는 ‘너무 먼 당신’을 향한 울부짖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공릉동에서 한 많은 신입생 교양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돼 동송동으로 온 이후에야 우석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학년을 조용히 다니면서 뭔가를 은밀히 준비하는 듯 보이던 그는 졸업 후 방위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훌쩍 떠나왔다. 떠날 때 나랑 뜨겁게 작별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뜨거운 작별이 한국을 영원히 떠날 것임을 암시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글썄, 짝사랑 사건이 그의 인생행로를 뒤흔들어 놓은 것일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봉연은 우석을 배려했는지 대학 4년 동안 다른 누구와도 데이트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봉연으로서의 나름대로 근신하고 수절하는 예의로 우석의 순정과 마음의 상처에 말없이 보답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영화 포스터에 우석이의 고뇌하던 얼굴이 겹쳐온다.

“

일종의 유행병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여학생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홀로 사랑에 빠진 녀석들은

나름 심각한 상사병을

앓고 있었다.

처음 차를 타면 생기는

멀미 비슷한 증상이었다.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07)

못한 회한을 평생 가슴 깊이 묻어놓고 살아간다. 첫사랑이 이뤄진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대체로 1990년대로 보이는데, 그보다 더 어설피고 가난했던 개발 독재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나에게도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 가슴 뭉클한 공감이 느껴진다.

1969년에 입학한 우리는 동송동의 대학 본부 운동장에서 입학식만 하고 수업은 서울 변두리 공릉동의 배나무 과수원들로 둘러싸인 공과대학 캠퍼스 낡은 교실에서 시작했다. 의·약, 농·공, 예능, 사범대를 제외하고 법·상, 문리대 신입생들은 전공학과와는 무관하게 반별로 편성돼 이곳 오지에서 1년간 교양수업을 받도록 돼 있었다. 뿌리 깊은 반체제 학생운동의 선후배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신입생들을 상급생 선배들로부터 격리 봉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었다.

공대의 황량한 캠퍼스 밖으로 걸어 나오면 뽕얇게 휴먼지 날리는 비포장 자갈길의 신작로가 있었다. 상계동과 서울역을 오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서너 대씩 다녔지만,

랑한 캠퍼스에도 노란 개나리와 빨간 진달래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봄을 타는지 미숙한 녀석들 일부는 애정결핍증을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사춘기를 앓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남녀공학이 아닌 세대라 대학입학 이전에는 여학생을 교실에서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대학에 들어와 보니 다소곳한 선녀들과 한 교실에 앉아 수업 받는 것 자체가 황홀하고 가슴 뛰는 체험이었다. 여학생이 몇 명이라도 배정된 반은 분위기부터 달랐다. 그녀들의 아리따운 뒷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휴강이라도 되면 자태도 고운 그녀들은 교실 뒤통을 나란히 손잡고 거닐면서 달콤한 가곡을 합창하곤 했다. 우리 같은 총각들에게 그녀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우상이었다. 점차 짝사랑 신드롬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구는 무슨 과의 여학생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는 같은 반의 여학생 누구를 사모하고… 일종의 유행병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여학생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홀로 사랑에 빠진 녀석들은 나름 심각한 상사병

동 정

수 상

▲孫一根(법학51-64 가천대 초빙 교수·분회 상임 부회장)= 지난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시상식에서 원로언론인 특별상 수상.

▲李順載(철학54-58 가천대 석좌 교수·나라사랑 봉사회 대표)= 지난 11월 30일 보훈문화상(예우증진 부문) 수상.

▲韓永愚(사학57-62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이화여대 이화학술원장)= 지난 11월 30일 民世安在鴻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3회 민세상(학술연구 부문) 수상.

▲殷茂一(중문59-65 전북대 명예교수·매화송 대표)= 지난 10월 22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주최한 '2012 IFFE 지정 우수상품' 평가에서 푸치뽕과 패지감자 등으로 만든 남원G&D 고추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 수상.

▲李祥義(약학62-66 前과학기술처 장관·녹색삶기술경제연구원 이사장)= 지난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수여하는 '靑南 과학진흥상' 수상.

▲金信福(교육64-68 모교 행정대 학원 명예교수·가천학원 이사장)= 지난 11월 21일 미국 퍼즈버그대에서 '전통의 월계관상(Legacy Laureate)' 수상.

▲朱剛秀(지질64-68 한국가스공사 사장)= 지난 11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품질대상·최고경영자상 수상.

▲金仁圭(정치69-73 前KBS 사장·분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11월 19일 미국 뉴욕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에미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

▲鄭道彥(의학70-76 모교 정신과 학교실 교수)= 지난 11월 9일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 수상. 또 10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에서 수여하는 제19회 대한의용생체공학상 수상.

▲鄭泳根(화학73-77 모교 화학부 교수)= 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1회 과기한림원 학술상 수상.

▲安健熙(법학78-84 이노션월드와이드 대표)= 지난 11월 26일 서울AP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광고인상 수상.

▲姜奉均(미생물80-8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난 11월 2일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8회 경암학술상(생명과학 부문) 수상.

▲方珉昊(국문84-89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11월 3일 (주)문학사상과 訥人金煥泰기념사업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23회 김환태평론문학상 대상 수상.

▲이사민(의학00-06 모교 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 지난 11월 3~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학회 회의에서 '최우수 젊은 연구자상' 수상.

▲權点柱(AMP 65기 신한생명보험 사장)= 지난 11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成結結(ACAD 55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난 11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崔炳五(AFB 3기 패션그룹 회장·AFB동창회장)= 지난 11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한국의 경영대상 시

상식에서 마케팅대상 수상.
▲蘇鎭世(ALP 12기 롯데슈퍼 대표)= 지난 11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朱京燮(ALP 16기 서울 남부구치소장)= 지난 10월 26일 제6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 수상.

▲金樂會(AFP 2기 제일기획 사장)= 지난 11월 7일 한국 광고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 수훈.

▲李吉周(ASP 16기 KT 홍보실장)= 지난 11월 15일 한국PR협회 '2012 PR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PR인상 수상.

▲玄林鍾(상학56-60 김유비장학회 이사)= 최근 수필 '죽음에서의 탈출'로 월간 '수필과 비평'의 제132호 신인상을 수상하고 수필가로 등단.

▲朴英珠(경제59-63 前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건산업 회장)= 지난 11월 21일 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임명.

▲趙漢羽(의학61-67 모교 명예교수)= 지난 11월 22일 서울 기든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재선임.

▲金一燮(경영64-69 한국형경영연구원장·관악회 감사)= 지난 12월 1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제5대 총장에 취임.

▲鄭永浩(영어교육64-71 前국회도서관장)= 지난 11월 15일 임기 2년의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에 선임.

▲朴在甲(의학67-73 前국립암센터 원장·모교 외과학교실 교수)= 지난 11월 16일 충청북도 명예도지사에 위촉.

▲金英薰(행정71-75 대성그룹 회장)= 지난 11월 8일 모타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총회에서 임기 3년의 공동의장에 선출.

▲金承協(의학73-79 모교 영상의학과 교수)= 지난 11월 7~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취임.

▲金光珉(기계공학74-78 연세대 교수)= 지난 11월 21일 한국

인 사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차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SM5의 변화를 만나보세요

New SM5 Platinum 탄생

▶ 감각적인 럭셔리 스타일로 품격이 업그레이드됩니다 ▶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 숨은 위험까지 알려줍니다 ▶ S-Mart Connect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간편해집니다 ▶ 스마트 ECO 메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친환경 드라이브가 가능해집니다 ▶ 프리미엄 나파시트로 실내가 더 특별해집니다 ▶ BOSE®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한 감동을 전합니다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New SM5 2.0 CVT C II (엔진·배기량 1998cc, 공회전중 145kg, 무연속속기 연비 14.1km/l, CO.배출량 198g/km, 2등급) - New SM5 2.0 CVT C II (LPL) (엔진·배기량 1998cc, 공회전중 1470kg, 무연속속기 연비 10.0km/l, CO.배출량 176g/km,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 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비센터(080-300-3000)/02-300-3000이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2 RENAULT SAMSUNG MOTORS



NEW SM5 Platinum

자동차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權東一(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11월 30일 임기 2년의 한국법과학회 제7대 회장에 취임.

▲尹汝權(경제77-81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예산심의위원회(BRC) 위원장에 임명.

▲李榮九(법학77-81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지난 1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에 취임.

▲文敬蘭(식품영양79-83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지난 11월 27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

▲韓宗兌(정치81-85 前서울신문 정치부장·前국회 대변인)=지난 11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 감사에 선임.

▲金炳希(국문82-86 서원대 교수)=지난 11월 23~24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PR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임기 1년의 제15대 회장에 선출.

행 사

▲白樂院(의학44-51 인제학원 이사장·분회 고문)=지난 11월 20일 서울 저동 인제대 인당관에서 제2회 仁濟 청년상 시상식

개최.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 그룹 회장·분회 고문)=지난 11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동아제약 창립 80주년(창립기념일 12월 1일) 기념식 개최.

▲俞 焄(행정49-54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劉基天교수기념 사업출판재단이사장)=지난 10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기전 형법학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8회 月松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朴熙伯(의학51-57 박희백정형외과 원장·분회 부회장)=지난 11월 9~11일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의사회연맹(CMAAO) 이사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丁海昌(법학56-60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분회 부회장)=지난 11월 19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제5회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시상.

▲俞東濬(잡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12월 5일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의견 교류.

▲李炳勳(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최근 '휴대폰-청진기'로 미국 발명특허 취득. 또 모교 의대 金周漢(의학84-88) 교수와 공동으로 '원격진료 청진기'를 출원해 국내 특허 취득.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1월 29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경제변화와 북·중 접경 지역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11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LG CSR 金榮基 부사장을 초청, '기업의 새로운 DNA-CSR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국제힐링학회 회장)=지난 11월 16~18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포사이트 컨퍼런스에서 '세계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확실한 진로 모색을 위한 기본 개념화 작업: 힐링문화와 힐백을 향하여'로 주제 발표.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한국정치평론학회 회장·분회 논설위원)=지난 11월 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제18대 대선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연례학술회의 개최.

▲金在洪(정치69-76 前국회의원·경기대 교수)=지난 11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정희 유전자' 출판기념회 열어 李萬烈 前국가인권위원회장, 成裕普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 鄭大哲 前민주당 대표, 金相坤 경기도 교육감, 千正培 前법무부 장관, 文炳浩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유신 40년을 말한다' 토크 진행.

▲朴玉任(농가정70-74 순천대 교수·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회장)=지난 10월 12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玄旼錫(경영70-74 한국개발연구원장)=지난 11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金鍾喆(치의학71-77 모교 소아치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5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의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물망초학교 내에 치과진료소를 개소하고 진료봉사.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관악회 이사)=지난 11월 17일 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클럽 창립 54주년 기념 행사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 개최.

▲卞裕榮(수의학75-80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지난 11월 2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주제로 제4차 장애인정책토론회 개최.

▲柳惠淑(기악82졸 피아니스트)=지난 11월 9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바흐, 쇼팽,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金度演(신문81-85 국민대 교수·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지난 11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 개최.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지난 11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李仁植(작곡82-86 성신여대 교수)=지난 11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임버홀에서 '꼬리물린 조각단상'을 주제로 여섯 번째 작품발표회 개최.

▲林貞鉉(성악83-87 포스오페라 대표·테너)=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申東曄시인의 서사시 '금강'을 칸타타 형식

동문전화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결혼을 잘 하려면 뛰어난 결혼정보회사를 만나야 합니다.
수준높은 특별한 만남을 원하신다면, 엔노블과 상담하십시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2012 대한민국
모범기업인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012년 10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엔노블 김옥근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오제세 국회의원)으로부터
2012 모범기업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신중한 추천과 엄정한 공적 심사를 통해 모범기업으로써,
엔노블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인정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엔노블은 1등 노블 결혼정보회사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으로 창작한 작품 공연.

▲鄭修安(기악90-94 플루티스트)=지난 11월 1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모차, 쇼커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金珉志(기악92-96 피아니스트)=지난 12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에서 폴랑크, 프랑크, 뮌디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김정기(기악95-00 호른니스트)=오는 12월 1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因緣'을 주제로 힌데미트, 미요, 생상스 등의 작품 공연.

▲김정미(기악95-99 피아니스트)=지난 11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드뷔시 등의 작품으로 듀오연

주회 개최.

▲김세경(국악98-02 경기도립국악단 단원)=지난 11월 10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피리 독주회 개최.

▲李玉揆(기악98-02 피아니스트)=지난 12월 15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유효정(기악00-04 바이올리니스트)=지난 12월 12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라벨,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으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황의원(기악01-06 바수니스트)=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글린카, 파슈, 비치 등의 작품으로

귀국 바순 독주회 개최.

▲金泰英(기악02-08 색소폰니스트)=지난 12월 14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빌라로보스, 오벵 등의 작품으로 귀국 색소폰 독주회 개최.

▲羅鍾億(AMP 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라종억의 靑風素言' 출판기념회

개최.

Ⅰ 참가 명복을 빕니다 Ⅰ

관악회 金炯珠이사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인 松山 金炯珠(토목공학46-50) 삼안전 회장이 지난 11월 6일 별

세했다. 향년 88세.

1924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한 고인은 대한토목학회에 72여원을 기증해 학회에서 그의 호를 딴 '松山賞'을 제정, 2002년 9월부터 시상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간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0여원을 출연함으로써 재산을 공익사업에 희사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해왔다.

松山 金炯珠선생을 기리며

張 丞 弼(토목공학61-65)모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지진공학과 풍공학을 포함해서 교량공학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풍공학 분야의 이론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대교의 내풍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지지 교량의 태풍에 대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풍동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는 교량을 풍동실험할 만한 연구실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차원 모델로 만든 작은 모형실험은 다행히 서울대 항공학과 풍동실험을 사용해 겨우 해결할 수 있었으나, 3차원 전체 교량 모형실험은 일본 동경대 풍동실험실을 통사정해서 겨우 빌려 쓰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金炯珠선배님께서 저를 좀 보자고 하신다는 연락을 삼안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 처음 松山 金炯珠선생을 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말씀하실 줄 앎으시더니 식사가 끝날 무렵 풍동실험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시며, 시설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7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더니, 저에게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다시 질문하셔서 평소 생각하던 대로 정부에 연구비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러나,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그 날의 점심을 끝마셨습니다. 그 후에 그 후배한테서 이야기 들어보니 松山선생께서 서울대에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하시고 싶어하시던 차에 제가 풍동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풍동실험실을 지어 줄 요량으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실패해 정년을 하던 2008년까지 서울대 건설분야에 풍동설비를 갖춰 놓지 못하고 섭섭하게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松山선생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松山선생께서는 계속해서 토목학회에 송년발딩을 쾌척하시는 등 대선배로서의 모범을 솔선해 후배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그분의 도움으로 풍동실험실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열정이 계기가 돼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규모의 풍동실험실을 찾아 볼 수가 있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松山 金炯珠선생의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故 松山 金炯珠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B112호
- 이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YOUR
TRUE
PARTNER

국경없는 기술경쟁 시대,
특허를 알면 경영이 보인다.

세계는 총성없는 기술경쟁, 특허전쟁이 한창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리&목특허는 지난 20년간 국내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획득·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공사례를 남긴 리&목특허의 가치서비스는 다릅니다.
앞으로도 리&목특허의 300여명 전문인력은 고객의 진정한 파트너로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8회 국제거래진흥대상을 수상한 신지식 특허원 대표변리사 이 영 필

리&목특허의 Total Service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국내외 출원

특허조사
상표조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감정

심판 및 소송
특허법령의 사업화
컨설팅

리&목 특허법인
Y. P. LEE, MOCK & PARTNERS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30길 13, 12F(도곡동, 대림아크로텔)
TEL : 02)588-8585(대) FAX : 02)588-8586



신한은,

꽃이 되어 사람에게로 가자
삶을 향기롭게 하자.

징검다리가 되어 사람에게로 가자
어려움을 건너게 하자.

모닥불이 되어 사람에게로 가자
내일을 따뜻하게 하자.

늘 신한을 믿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한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한이 다짐, 또 다짐합니다.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따뜻한 금융





www.gmic.co.kr

renoma

PARIS
DEPUIS 1963



OPEN MY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곳

[삼성 임직원과 영상성 열정운영진 여러분들입니다]

SAMSUNG BLOG & TWITTER & FACEBOOK

삼성블로그(www.samsungblogs.com) 트위터(twitter.com/samsungin) FACEBOOK(www.facebook.com/samsung)



신 간

■ 새벽, 창을 열다

— 金后蘭 지음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인 金后蘭(가정교육53집) 동문의 열한 번째 시집.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문학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동문의 이번 시집은 종전의 시집에 비해 시인으로서 비교적 진솔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시편들이 더러 보이기도 하지만 시인 자신이 지닌 시적 신념을 더 철저하게 심화시켜 순화된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총 5부로 돼 있는 이 시집은 제1부 인생, 제2부 사랑, 제3부 소망, 제4부 추억, 제5부 생명으로 나뉘져 있다. 〈시학刊·값 10,000원〉

■ Dynamic Management

— 金寅鎬 지음



다이나믹 매니지먼트학 회장인 한양대 金寅鎬(상학61-65) 명예교수가 자본주의 위기의 실천해법과 한국 재벌구조의 진화논리를 다룬 책.

요즘 자본주의 위기는 혁신에 대한 실패경제와 금융경제에서의 효과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시장의 니즈(needs)진화에 적응하는 니즈맞춤 혁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변화와 국가경제의 내실화가 이뤄져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또 지난 40여 년간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재벌구조의 진화는 바로 세계경제 흐름과 글로벌시장의 니즈진화에 니즈맞춤혁신으로 적응하는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를 펼쳐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비봉출판사刊·값 25,000원〉

■ 원조 프로파일러

명탐정 홀즈의 추리 통학문적 접근

— 鄭桂燮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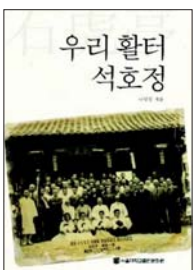
덕성여대 불어불문학과 鄭桂燮(불문71-75)교수가 강의 경험을 살려 언어학을 기호학으로, 논리학을 추리학 쪽으로 초점을 맞춰 명탐정 설목 홈즈를 통학문적으로



접근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해 1장은 탐정소설에 대한 정의와 대표적인 범죄학의 권위자 몇 명을 소개하고, 2장은 탐정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호학적 지식을 다뤘으며, 3장은 귀납추리, 4장은 연역추리, 5장은 사고실험과 감정이입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6장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탐정이 하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부록에 코난 도일의 작품목록, 1백대 탐정소설 등을 담았다. 〈교우사刊·값 15,000원〉

■ 우리 할터 석호정

— 羅永一 지음



모교 체육교육과 羅永一(체육교육76-80)교수가 서울 남산의 전통할터인 石虎亭의 어제와 오늘

을 조망했다. 이 책은 현재 남산공원의 작은 체육시설에 불과한 전통할터 석호정의 사원들이 왜 공룡과도 같은 서울시와 법정다툼을 하면서 이곳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석호정 사원들이 생각하듯이 서울시 중구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석호정이 남산공원에 계속 유지돼야 하는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그 답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전통할터인 석호정은 언제 창건이 됐고, 과거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전통을 이어왔으며, 석호정 사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활동들을 살펴 근래 벌어지고 있는 석호정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우리나라 궁도계와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석호정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할터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23,000원〉

■ 건강검진 내비게이터

— 金英植·鮮宇晟 지음



울산대 의대 金英植(의학76-82)·鮮宇晟(의학82-88)교수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검진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안내한 책.

검진에 앞서 ‘남녀 연령별 선별검사표’를 통해 내 나이에 맞는 검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되는 질문지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 특히 본문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암검진’과 뇌종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바이러스간염 등의 ‘만성질환검진’으로 나뉘 한국인이 평생 주의하고 관리해야 할 질환들의 검진 방법과 결과에 따른 추가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하서刊·값 15,000원〉

■ 두보의 삶과 문학

— 李永朱 외 지음



올해는李白과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당나라의 시인 杜甫가 탄생한 지 1300주년이 되는 해다. 사후 ‘詩聖’이라 불리며 추앙받았던 杜甫의 시 세계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교 중어중문학과 李永朱(중문76-82)·李昌淑(중문81-85)교수, 강릉원주대 金萬源(중문80-84)교수, 한국방송통신대 金星坤(중문81-85)교수, 고려대 김준연(중문88-92)교수가 함께 지은 ‘死不休-두보의 삶과 문학’에는 신선한 삶을 살았으나 불멸의 거장으로 우뚝 선 杜甫의 정신세계가 녹아 있다. 저자들은 기존에 음역했던 시의 제목을 가능한 한 우리말로 풀었고, 杜甫의 삶과 시뿐 아니라 후대의 杜甫 문화에 이르기까지 ‘杜甫’라는 거대한 문화적 뿌리가 미친 영향에 대해 섬세하게 짚어낸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34,000원〉

■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 宋容相 외 지음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적절한 신체활동이란 무엇이며, 바른 식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실천해야 효과도 높이고 또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모교 압연구조장인 산부인과학교실 宋容相(의학77-83)교수가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모교 병원 교수진을 포함해 약학, 영양학, 체육학, 사회학 등 학계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 63명이 집필에 참여하고, 모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가 감수한 이 책은 한국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

공연

■ Piano Da Camera

제7회 정기연주회

— 12월 23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鄭盛文(기악92-96)·권경희(기악93-97)·박재

되는 암과 심혈관질환, 비만이나 당뇨병을 포함해 대사증후군, 간질환 등의 주요 질환은 물론이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척추측만증, 아토피 피부염, 만성피로, 천식, 오십견, 불안증, 어지럼증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을 선별해 수록했다. 〈연합북스刊·값 12,000〉

■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 方珉昊 외 공저



이 책은 소설가 孫章純(불문54-58) 동문과 그 시대를 위한 입문 과정이 되는 책으로 손장순 문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모교 국어국문학과 方珉昊(국문84-89)교수 등 13명의 필자가 한국문학의 1960, 1970년대와 손장순 문학의 의미, 1960년대 여성 지식인의 ‘자유’담론과 미국, 프랑스 문학 사상 수용과 손장순 문학, 여성성의 모색을 통한 삶의 근원적 탐색, 손장순의 문학과 삶의 내용을 통해 손장순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소개했다.

戰後라는 뜻의 프랑스어 아프레게르(après guerre)를 여성화한 아프레걸(après girl)은 전후-실존주의-여성이라는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데, 본래 취지는 ‘아프레게르’ 혹은 ‘전후파’라 칭할 만한 현상이 여성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

이 책은 손장순의 ‘전후’ 의식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돼 나타나는지 보여주며, 손장순은 한국전쟁 이후 등장한 ‘아프레걸’의 시대를 이끌어 나간 시대적 전위였고, 이 세대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짊어져 책임지려 한 강인한 의식의 소유자였다고 소개한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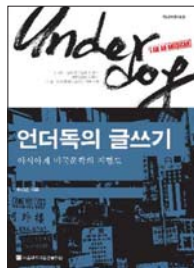
■ 언더독의 글쓰기

— 尹誠浩 지음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尹誠浩(영문90-94)교수가 아시아계

은(기악93-97)·유순영(기악93-97)동문이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슈만, 쇼팽, 프로코피예프, 스크랴빈, 차이코프스키 등의 작품으로 멋진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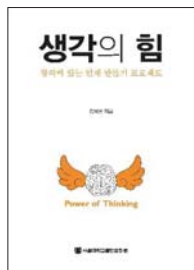


미국문학을 둘러싼 욕망과 긴장을 섬세하게 읽어낸 책. 아시아계 미국문학이 우리의 내면화된 변방성과 어떻게 교호하며, 또 이것이 미국이라는 복합적인 시공간에서 어떤 의미망을 구축하는지를 폭넓고 치밀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하며 그 성격을 ‘미국’이라는 중심부 기호에 의해 호명된 ‘언더독’으로 정의했다. 언더독이 호명되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다수이면서 하나’인 전통적 미국문화의 정체성 아래 복류하고 있는 ‘하나이면서 다수’의 속성을 밝히고, ‘미국’이라는 중심 기호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미국학 연구의 역사적 성격 규명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19,000원〉

■ 생각의 힘

— 姜錫勳 지음



영화와 드라마에서 의학자문을 맡아온 모교의 과대학 의학교육실 姜錫勳(의학92-98)교수가 우리나라에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드문 이유를 파헤쳤다.

姜교수는 이 책에서 무의미한 경쟁을 조정하는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풍토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창의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고유의 창의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힘 ‘a’를 키워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姜교수는 천재 발명가이자 경영자로, 천재 학자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잡스와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 그에 대한 답을 창의성과 창의력이라는 개념으로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10,000원〉

한국뇌연구원 PI 채용 공고

한국뇌연구원은 세계일류의 뇌융합 연구 중심기관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뇌연구원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뇌연구원 설립 개요 및 추진 경과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21세기 고령화 사회 등 각종 현안을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뇌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
 - 국내 뇌융합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 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거점 연구기관 설립·운영
- 설립근거 : 뇌연구 촉진법 제17조
- 기관성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연혁

- 1998.6 뇌연구 촉진법 제정 (제17조 국가 주도의 뇌연구소 설립 규정)
- 2009.9.29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계획(뇌연구촉진심의회)」 확정
- 2011.6.3 뇌연구원 유치지역(대구) 최종 선정
- 2012.7.23 한국뇌연구원 초대원장 선임 (서울대 서유현 교수)

1 직 종 : 정규직 PI급 연구원

2 연구분야 : Brain research, Neuroscience and Neuroengineering

3 지원자격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또는 의학분야의 PhD, MD, MD/PhD

4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 이력서(published 또는 accepted paper 포함)
- 연구요약서(2page 이내)
- 연구계획서(3page 이내)
- 추천인 명부(3인 이상)
- 대표논문 3편 이상(PDF 파일)

☞ 자세한 채용 정보는 한국뇌연구원 홈페이지(www.kbri.re.kr) 참조
☞ Nature, Science, BRIC 홈페이지 참조

5 채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채용 완료 시까지

6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yhsuh@kbri.re.kr)

7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8-8 5F(우:700-010)
한국뇌연구원 기획행정팀

8 기타 및 유의사항

- 지원자격 미준수,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신원조회 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시 직종(급) 부여 및 경력 산정은 연구원 내부 기준에 따름
- 향후 진행상황은 한국뇌연구원 홈페이지(www.kbri.re.kr) 참조
- 근무지 : 대구광역시
- 문의처 : 한국뇌연구원 기획행정팀
Tel. 070-4496-3820 Fax. 053-428-1841
E-mail, birda17@kbri.re.kr

한국 뇌 연구 원 장



한국뇌연구원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전화. 070-4496-3820 | 팩스. 053-428-1841
e-mail, birda17@kbri.re.kr | www.kbri.re.kr

맥스플러스나노텍(주)은 기업 판촉 전문회사입니다.

기업 홍보용



결혼, 돌 기타 행사 답례품



고급 도자기 세트



술병/술잔/다기 등 기타 도자기



기업홍보용 액정보호 강화글라스 (주문제작 가능)



액정보호 강화글라스

1. 액정보호
2. 투명률 90%이상
3. 스크래치 없음
4. 0.4mm강화글라스
5. 손쉬운 부착
6. 반영구적 사용



Yello Tiger, iP_005

Cheetah Skin, iP_006

Black Tiger, iP_007



Crocodile Skin, iP_008

서울대학교 전용 디자인

맥스플러스나노텍과 함께
‘기업의이미지’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물하세요



MAXPLUS
NANO TECH

www.maxplusnano.com
www.mugvillage.co.kr

주문제작 문의

1688-8544 | 010-3231-2522
031-207-4959 | mineedon@naver.com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10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2. 6. 28~11. 20)·일반(2012. 6. 30~11. 2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권은희 大院84
△권희덕 공대71 △김병국 의대64
△김병철 AIP38 △김상완 의대90
△남기현 GLP2 △류 훈 공대83
△박종영 의대72 △박현렬 공대67
△석광현 법대75 △손정수 공대81
△안숙희 간호84 △이종교 자연73
△임경숙 생활80 △장 일 법대86
△장신이 保院01 △전경애 ACAD47
△천홍욱 行院84

(일반) △강민구 법대77
△강위창 자연85 △강태선 ACAD72
△강희태 AMP73 △김광열 공대79
△김길중 법대61 △김동현 공대10
△김성렬 법대67 △김세중 문리65
△김시동 농대89 △김철현 AMP72
△김태리 법대04 △김현수 ACAD30
△김형중 MBA10 △맹석재 保院79
△목영준 법대74 △박강용 의대84
△박경열 AMP73 △박기정 AMFR7
△박노영 상대55 △박수진 인문06
△박양한 법대60 △박주하 사회77
△방윤주 생활76 △서상노 AMP73
△신양철 SGS21 △심순선 AMP73
△안 순 법대69 △안병룡 경영84
△유연철 ASP22 △윤인식 사대65
△이 립 법대82 △이광형 공대64
△이세민 약대56 △이영희 IFP7
△이윤달 상대62 △이은재 농대85
△이재현 공대02 △이종남 IFP7
△임호명 HPM12 △전중규 AMP73
△정원태 AMP73 △정주영 의대84
△정지인 음대97 △조장현 공대07
△조철재 ACAD13 △조현순 생활82
△최광은 AMP73 △최성훈 공대02
△최정필 공대86 △함순예 保院88
△황길봉 GLP25

이 사

◆인문대 △강상진83 △강능규81
△김덕철81 △김동철78 △김병철76
△김선아93 △노 찬74 △문상원72
△박명식77 △손예철69 △유국환81
△육동인81 △윤상필84 △윤호중81
△이강근81 △이재경75 △임미하83
△임윤택72 △전원배73 △최규식73
△한봉희77 △홍성범87 △홍성윤73
△홍종선75 △황보성85
◆사회대 △강종표76 △권용발74
△권혁규84 △김정우74 △김광재90
△김기식85 △김기준77 △김성환72
△김영희74 △김용근84 △김용호75
△김준범84 △김진국78 △김창범86
△김충환73 △남기섭76 △노형식90
△류성록82 △문도선83 △박 철81
△박민식84 △박재하77 △박찬욱72

△박홍배87 △박희영80 △방창식83
△상지원86 △서동영79 △손문호76
△송동섭81 △신철식73 △심일혁89
△오대영80 △유동근92 △유성엽80
△이동훈74 △이성만75 △이원섭69
△이재열80 △장경영92 △전승철81
△전홍찬79 △정봉교72 △정석구77
△정인억73 △정준표75 △조병철73
△조태형88 △주순식73 △주진혁77
△최금락76 △최익순73 △하전기73
△한인구75 △홍석규75

◆자연대 △강병도82 △김규중72
△김대영81 △김진익84 △김현식91
△민영철74 △박송용74 △서재영83
△손병용68 △송환빈82 △양병룡74
△윤재근84 △이덕희77 △이동한77
△이명용77 △이은용72 △이철의75
△장성기72 △조태진74 △진 민78
△최강원81 △최영욱84 △최윤경82
△최종권75 △최진우75 △홍광현77

◆간호대 △김명숙61 △김신정73
△박상연68 △이금문90 △이명란84
△이선자61 △조동란66

◆경영대 △김근수77 △김선규73
△김종환92 △김준철83 △김홍섭79
△김확식76 △박기환69 △박종호86
△반용음77 △백우현74 △서정호88
△서준호86 △성열우77 △신용삼73
△신종열90 △유경연95 △이동호77
△이원엽87 △이호선75 △임기찬90
△조현태83 △진영곤75 △차순관72
△최석원70 △추연우78 △한승희76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명구89 △강상돈92 △강의철73
△강효순68 △강희신85 △고 찬99
△곽정석50 △구창용60 △김 훈71
△김경배68 △김경호75 △김광옥56
△김남호70 △김도심52 △김동성73
△김명리61 △김문경61 △김범석92
△김석홍81 △김선복62 △김성연71
△김성철80 △김성태53 △김수호76
△김연철67 △김영규76 △김영신89
△김용원70 △김용범70 △김인달70
△김인동80 △김인선65 △김인준68
△김재수77 △김정섭77 △김종원74
△김종의59 △김주홍47 △김진기87
△김태문70 △김태선93 △김태준57
△김학세65 △김현이77 △김홍식76
△김희정57 △남장수64 △노승규82
△노용래72 △문영기69 △문영학65
△문호지84 △박경배67 △박노상57
△박동서61 △박상덕71 △박상봉87
△박상언71 △박성규57 △박신통65
△박영수77 △박용규58 △박용일62
△박용중52 △박의승73 △박재기52
△박재룡68 △박진수70 △박찬민57
△박찬백67 △박찬빈60 △박찬석92
△박태권55 △박현철85 △박홍춘71
△박화규77 △백명철79 △백상엽86
△변순전85 △부장렬77 △서남규69
△서동식81 △서동원70 △서영수86
△서완수69 △설재훈74 △성기초51

△손석광75 △송배원75 △송창영68
△송대범85 △신동식51 △신영수74
△신종계73 △신홍현84 △안순신69
△양 갑68 △양기정67 △양배근82
△양윤재69 △어성준67 △여인선75
△오세기64 △우진태71 △원종환52
△유재운78 △윤세한79 △윤종섭84
△이강우79 △이계수63 △이계환62
△이금석59 △이남진69 △이능규69
△이두호84 △이봉주67 △이상언81
△이상준76 △이상훈92 △이성규58
△이성원58 △이용경60 △이원도59
△이원우78 △이원표72 △이재형76
△이정만70 △이종남73 △이종호84
△이종화76 △이종훈53 △이종훈55
△이주선64 △이중재64 △이중호70
△이지원81 △이찬홍74 △이춘성71
△이태순79 △이희성70 △임기석63
△전산백53 △정목화52 △정재영70
△정종철72 △정태영75 △정한모71
△정현교75 △정현일60 △정형수59
△조규남72 △조장현64 △조창현84
△조택호61 △지성근71 △천창호89
△최규현90 △최상호64 △최완철69
△최재순90 △최재열69 △최정우84
△하규성76 △하태흡75 △한광석76
△한영철74 △한재성79 △허옥렬70
△현희현59 △홍보기89 △홍성일66
△홍호식69 △황 철71 △황석희87
△황일인59

◆농대 △강철기76 △곽소수60
△권오진52 △김광호61 △김동태62
△김병운69 △김완기65 △김원보73
△김일종69 △김종훈67 △김지훈87
△김태수66 △김풍진71 △노영성74
△리신호74 △명을재83 △명인종73
△문동준70 △박기전81 △박동선58
△박상용83 △박순흥85 △박창언80
△변상지74 △부경생60 △서광석79
△서기호60 △서병륜69 △서원호74
△서정근59 △손해일67 △손환규64
△송경빈75 △신대웅53 △신동현86
△신용석61 △심미옥86 △심용섭70
△여환명86 △염익환78 △오봉국48
△오세인55 △오원식83 △왕진무60
△유병두73 △유부열66 △유장열68
△윤경섭65 △윤동원79 △윤여두67
△윤여성76 △윤여창53 △윤재호69
△이광희84 △이규재50 △이대진65
△이무근60 △이무영80 △이상걸79
△이상국74 △이성호71 △이승일85
△이원덕80 △이임영81 △이장섭52
△이재기53 △이학재83 △이희석57
△임석원94 △임열재64 △임용택54
△정복현74 △정재웅79 △정주영87
△조국광75 △조선종84 △조재구83
△최동하71 △최승호83 △최찬식56
△한갑준52 △현근택90 △홍동선56
△홍성표56 △홍순명68 △홍홍호62

◆문리대 △강사욱70 △고영소56
△권혁방65 △김 욱69 △김관식56
△김대성61 △김동선57 △김상진71

△김상하45 △김수진57 △김용성62
△김재민67 △김춘석69 △김치수60
△김홍철60 △남광성61 △남영우68
△노태돈67 △류종택56 △문현석66
△박경석55 △박성훈69 △박용길66
△박정무59 △박하진67 △박홍식66
△배규한70 △배성근56 △석준형67
△송대성69 △신상우64 △안국정63
△안병균67 △안승원68 △안취준61
△엄경일64 △엄영진63 △오원영59
△오재희53 △오제운59 △유덕상68
△유보일60 △유양수57 △윤홍근63
△이상원71 △이상직66 △이성덕56
△이성우63 △이영훈64 △이용태53
△이용태63 △이용화53 △이원영69
△이원홍52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정수59 △이종한62 △이종희54
△이형규59 △임병석54 △임형두57
△임형택62 △장부일69 △장영수63
△전종규70 △정규수63 △정기호70
△정만조65 △정소성64 △정용두53
△조완규48 △조창화57 △진홍순70
△채영수68 △최 웅69 △최중기69
△표원수67 △하영식58 △한영우57
△허운욱57 △홍두표55 △홍영남60
△홍치모52 △황인광63

◆미대 △김규봉88 △김미혜78
△김민기69 △김제웅60 △민철홍54
△손희욱68 △오영희71 △윤명모56
△이선원75 △이종목76 △전민숙74
△정종해67 △한주연90 △현지연93

◆법대 △강 훈72 △강대석67
△강동세77 △강승준85 △강신원72
△강용식58 △강현안74 △강희철81
△고흥달68 △구본민77 △권영국69
△권은민82 △김관재71 △김국현96
△김권택63 △김규복69 △김덕주52
△김동원52 △김병국66 △김병학70
△김부찬74 △김상균77 △김상우86
△김성수68 △김수철71 △김연근85
△김영우56 △김영학83 △김완섭65
△김용환60 △김정학71 △김정후57
△김제식77 △김종일52 △김종철53
△김종훈98 △김준규75 △김준희76
△김찬식68 △김철수52 △김태병85
△김호응72 △김희주84 △김희태74
△니종태71 △노경국02 △류기홍58
△류진열72 △민수광60 △박 만70
△박국수67 △박상일77 △박성귀71
△박성진84 △박운현55 △박장우66
△박종성73 △박준서58 △박창현73
△박태훈66 △박홍우72 △박후상65
△변동걸66 △변학남52 △서승일67
△서정석77 △서정신58 △성문용63
△송병대67 △송상규84 △송창현69
△신일규69 △신현일77 △신호철61
△심우영59 △심장수70 △안경환66
△안상수64 △양현주81 △양희영52
△오세희58 △오지철69 △우성만76
△유 훈49 △유남석76 △유병규83
△유병환77 △유재선63 △유충걸64
△유홍중57 △윤교중65 △윤덕순59

△윤신승88 △윤장석89 △윤홍근79
△이건종72 △이규오43 △이동명75
△이무룡61 △이무상78 △이사철71
△이상국90 △이상진70 △이상환78
△이선우62 △이세형68 △이승철81
△이용우92 △이원호61 △이은종77
△이재근82 △이재성69 △이주성76
△이준상85 △이창복74 △이충범78
△이태운68 △이현욱78 △이효종59
△임내현71 △임종훈73 △전 광63
△전용학73 △전응진49 △전창영74
△정경택70 △정덕장59 △정성태75
△정세용74 △정연욱85 △정해주63
△정호영66 △조용준79 △조장혁90
△조종한65 △조철호91 △조해근78
△조해현81 △조현우68 △주우식78
△차한성72 △최병륜56 △최병모67
△최석원52 △최순철55 △최신석59
△최연희64 △최영도57 △최정현75
△한 민77 △한경구61 △한광세60
△현경대60 △홍광식67 △홍진태52
△황영목70 △황영선55 △황영하58

◆사대 △강경돈70 △강영삼59
△고영신73 △곽봉조70 △권 승76
△김대희83 △김상구60 △김성대59
△김영심82 △김용근65 △김용진75
△김원용74 △김재혁73 △김재호53
△김점술82 △김정기74 △김지은92
△김찬균54 △김천수58 △김학천59
△김학희73 △류근찬68 △박병기81
△박상필76 △박영태67 △박재공62
△박지모77 △박태섭76 △박효석70
△박홍일60 △변범식86 △석용장77
△설동균68 △신동철59 △신차균68
△여태철84 △오창훈83 △위종진91
△유경근58 △윤익도62 △윤재석71
△이계현72 △이광범92 △이동식72
△이동호59 △이상요74 △이선준48
△이언숙89 △이원강57 △이원순45
△이재민79 △이재혁63 △이종승65
△이준선69 △이진구71 △이찬근74
△이혜영75 △이환기81 △임광수68
△장종택55 △장춘하83 △전택수71
△정공수69 △정광삼58 △정기언72
△정상권72 △정용길77 △정원식48
△정재정70 △정창석73 △정철수68
△정희섭76 △조용복55 △조인형60
△최동환72 △최병환70 △최성재85
△최영상56 △최운식63 △최준명60
△최태상53 △하현준78 △한도연49
△함오연67 △형남규67 △홍석영85

◆상대 △강승규65 △고두모57
△구선희56 △구용서60 △권오규71
△권태인46 △김덕기52 △김민경53
△김명수73 △김명준62 △김병식68
△김상희66 △김영섭66 △김원길61
△김윤환67 △김창달53 △김태겸70
△김히두64 △김형덕59 △나진원67
△남영태65 △문영도50 △박상은55
△박성석61 △박종민64 △배경일69
△배정운59 △배철호68 △백정기71
△서정도66 △서주성44 △서충석71

△송병락59 △송인덕62 △신승철59
△신양우70 △신정철63 △안재전56
△양승우68 △우두현61 △우완식57
△우찬목55 △유석홍61 △윤석현67
△윤종현44 △이갑현61 △이계안71
△이광수50 △이남수62 △이동혁65
△이상윤62 △이승웅60 △이용희57
△이태환58 △장병구64 △장종목57
△전문준64 △정재택58 △정대욱62
△정대웅67 △정형배64 △조문규57
△조상호69 △조영삼71 △조창제57
△차태규71 △최기동70 △최도성70
△최수일55 △최종인61 △현정택67
△홍영기57 △황 훈68
◆생활대 △김성은83 △김지영69
△박지영87 △여의주82 △정영진68
△정해자61 △황수현04
◆수의대 △김계방61 △김인호53
△김진구61 △김창수64 △나기식54
△나종국54 △박성권74 △박전교74
△신현일57 △오효성77 △이문환66
△이성모78 △이수창61 △정원규50
△조효익59 △주현식73 △하태은80
◆약대 △김길수60 △김미희84
△김상수66 △김상조54 △김선중61
△김성오81 △김재환68 △박만기59
△박시우69 △배영일60 △손인자69
△심우원72 △안병욱68 △우중근61
△원희복73 △윤도중58 △윤병길71
△이선구90 △임종석78 △정현경83
△정희용76 △조영준69 △조용현74
△조정식62 △조중현68 △주승재86
△지현성56 △최선식64 △최진근77
△허 상58 △홍성한76
◆음대 △김순화70 △김인규65
△문정원88 △민미란73 △박세나90
△손국임64 △신상호74 △신정혜77
△심선화72 △유행웅60 △윤이나86
△이명희68 △이신화61 △이영심78
△이유희68 △이재숙59 △이준복68
△이준성81 △전신주67 △조창연66
△최승용78 △최승준65 △황응준87
◆의대 △강승백82 △강재훈88
△고건성67 △김광화55 △김규환76
△김근우61 △김명석62 △김명호68
△김병수54 △김상은77 △김성오87
△김영규43 △김용봉70 △김인호71

△김재윤79 △김정식68 △김태규76
△김한수82 △김환규78 △남도현84
△맹국영68 △목정은60 △문대혁76
△문대준44 △박경환71 △박종명69
△박주배68 △백태진74 △서동희88
△성상현73 △손봉기73 △손정민87
△양성범75 △양영식66 △염명결74
△오경규67 △오승환56 △유세화65
△유영성70 △유재란84 △이계평59
△이관희75 △이근장90 △이상근73
△이성규72 △이승규67 △이영돈73
△이의용72 △이정길63 △이종호81
△이충원76 △이태원92 △임대정91
△임태환70 △장경만80 △전형식81
△정 민75 △정경대53 △정동철54
△정두용73 △정용인68 △정유조85
△정을삼60 △정종환56 △조경환52
△최복식84 △최용석82 △하재인44
△한규섭72 △한덕종69 △한홍무56
△허준범70 △홍기정81 △홍성출89
△홍순우85 △홍영식61
◆치대 △권오규71 △김 일51
△김능세70 △김석연68 △김영철61
△김장현77 △김정욱83 △김종태70
△김진홍78 △김한경63 △김현제87
△김홍석57 △김홍석59 △남용욱51
△남태우76 △목성규81 △문형주79
△민병희74 △박기성55 △박수훈79
△박순억66 △박용한78 △박우진68
△박형기55 △박홍규71 △방수남62
△배현성64 △백순지63 △백승동78
△서영수67 △서학원74 △손영경86
△송명욱86 △송재용82 △신동인76
△안건모83 △양수정83 △양일수73
△양재호64 △양철호87 △유병도56
△유태영63 △윤귀성80 △윤동호80
△윤학영62 △이동악70 △이민희83
△이복상81 △이봉재56 △이상표77
△이성출70 △이승종69 △이윤상59
△이재봉70 △이종혁74 △이종호79
△이진결77 △이창우75 △이형규57
△이호정86 △임성수60 △정관서79
△정대현69 △정재영70 △정철표74
△정호길71 △조유동55 △조인호70
△조행작64 △진기열77 △진윤수80
△최순철73 △최인선82 △허재식93
△황의강61

◆대학원 △가순일94 △권호기83
△김경남84 △김경진84 △김문환79
△김석근81 △김석웅81 △김승호83
△나병만77 △문두길87 △문형근79
△박영득82 △서상혁79 △송강영91
△신동수92 △신호수85 △심정보83
△원상봉83 △유장훈86 △이시운81
△이재봉79 △이효수84 △임유택87
△임장수82 △전용기82 △정기화71
△정병희52 △최계운82 △최원희81
△황인자78
◆경대원 △김일란69 △김한준89
△임인규88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김윤신72 △김종오79
△박희서77 △정진택84 △최영아74
△황석전80
◆사대원 △석용진65 △이원형64
△정영식63
◆신대원 △김우룡71 △조용직70
◆행대원 △강윤원77 △곽대훈78
△김영화68 △김익영68 △김인동65
△김장실79 △남상우73 △노일숙79
△박우순76 △이경훈76 △장성호85
△장준규65
◆현대원 △권 완76 △김수철76
△김제성78 △박유정90 △박종일84
△박형석74 △정병환69
◆AMP △강성숙69 △강수아70
△고시목8 △권오석61 △김구섭66
△김세래46 △김승배45 △김영만65
△김영환34 △김진섭9 △김판진53
△노연웅48 △박인상28 △석 강61
△성승모1 △손병준68 △송학성63
△신동대35 △신재덕49 △심계진36
△안정화65 △오병제21 △우정욱37
△유병운23 △유시수25 △유진석32
△유한섭23 △육신학57 △윤수복63
△윤열현68 △윤종호48 △이규식54
△이병구16 △이병성2 △이원구50
△이용표36 △이한규23 △이현구52
△장영준62 △전용배57 △전현찬44
△정영대48 △조형수58 △진옥윤32
△최호경28 △한종희28 △허덕행2
△황의영59
◆AIP △고희수25 △권영렬19
△김선경41 △김영대44 △김장근15

△김정수43 △김휘중41 △문규원10
△민병주45 △박봉식16 △박무광43
△박양신20 △박영식28 △박종원27
△박종호9 △서영복19 △손광열9
△신용기9 △신현필13 △심영복38
△유길상9 △유영완17 △윤여순27
△윤한동24 △이덕영23 △이두평8
△이명호20 △이상화15 △이선재42
△이의현20 △전이현42 △정봉성29
△정상원39 △정창현20 △주영현12
△최순규36 △최원태26 △최창호7
△추현식32 △허정광19 △홍재성40
△황이남22
◆ACAD △권도중49 △권영호60
△권정신2 △김경래18 △김광철47
△김우연14 △김철환46 △김태완44
△노재우16 △박남신70 △박명규40
△박성득20 △박인복47 △방동식27
△변승일63 △서정만18 △안희수11
△이강국63 △이관범20 △이달화24
△이상영40 △이재복21 △이희수49
△전병순42 △정송학54 △조건창49
△조주태14 △조홍규26 △최수근51
△최종구62 △최철규68 △한성열67
◆ABP △김영근15 △양종하19
△이계용2 △이상래24 △이관철3
◆SGS △김봉규25 △김수근2
△김승규7 △김영구3 △김제남19
△김희철12 △박종인5 △손성오12
△안기석10 △이창식13 △정병재5
△정후병15 △조승연25 △황용연2
◆APC △이상진9 △정만모9
△조갑환9
◆HPM △권기진8 △김경태10
△김민규23 △김현수2 △김홍구12
△배영봉14 △성치용4 △염신희14
△이규진14 △이석기14 △이정희12
△이창식16 △이천수9 △이철희4
△이종섭8 △전성혁13 △정호용8
△최병래21 △최병용9 △최종환10
△한훈섭10
◆AMPP △나종팔6 △송실광7
△이귀복5 △최종식6 △하영수2
◆AIC △김동현25 △김영식29
△김운식29 △김정구3 △김형준24
△류진국1 △박종렬3 △신철화22
△웅상순7 △이경호7 △이인기11

△이정재2 △임봉순15
◆AFB △곽 후10 △김경일6
△김관택10 △양근영10 △이동락1
△이영두9 △이화식9 △장세영8
△정일진10 △조창섭10
◆AMPFRI △강동원27 △강태호22
△김경호15 △김정훈1 △박용철4
△이병윤26 △이유인7 △임한택6
△한기영3 △한봉수9 △호재국2
◆ACMP △김기식6 △김승택6
△김재호6 △김정식3 △김희현6
△남관우5 △남순우3 △우순근7
△이정현5 △정지호1 △하대정5
△한남희5
◆FIP △우영대7
◆GLP △강병섭21 △권덕수15
△김강호4 △김형중17 △류명선21
△박영식18 △서승욱19 △양재길5
△윤경상22 △윤여표11 △이동진16
△이동향9 △이용섭18 △이원욱11
△전인해14 △정해원17 △차화철12
△허수진14
◆ALP △권동환2 △김경일3
△백정기6 △소진세12 △신영숙8
△이국동6 △황은연12
◆SPARC △김달수1 △김윤창11
△김인환2 △김창근18 △김창자13
△백인호18 △서영출1 △석종호19
△오현규18 △이덕록7 △이영환19
△장재진2 △장효상11 △전용갑14
△정삼진18 △최동관19 △허상록11
△황인선15
◆AFP △이창식6 △정일채8
△조원국5
◆ASP △김종배11 △민병렬13
△박종득9 △유성걸7 △채수철15
◆BCP △강인기3 △윤경주4

일 반

◆인문대 △강현구79 △김정호90
△노민혜08 △류은숙04 △심재우86
△윤나경06 △이건협86 △이계원04
△이상근97 △장대철84 △정준모89
△정지윤06 △조은일83 △최상이99
△최완석88 △황진상88
◆사회대 △강지원07 △곽대환81



www.cctv.co.kr

인문도

Easy to Install
Audio Verification
Lowest False Alarm Rate

(주)아이엔아이는 지켜고 있습니다.

- CCTV SECURITY SYSTEM
- U-City 통합관제시스템 • 디지털 범죄 예방용 시스템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자동화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 / 갓길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 Forest Lookout Fire System(산불감시 시스템) • 과학화 외곽방호 무인감시 시스템(ALPHA SENSOR)
- CCTV 전용 고속력 적외선 투광기 • 전광판

Fence Mounted Perimeter Intrusion Detector
울타리 방호 센서시스템

본사·연구소·공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 52(8빌딩)
TEL:031-423-4400 FAX:031-421-4300

대구지사(주)한진영상정보: 대구광역시 와룡로 16길 17
TEL:053-761-3801 FAX:053-762-3801

제품문의:031-423-4400
jun@cctv.co.kr



△권태훈⁸⁷ △김덕인⁸² △김부겸⁷⁶
△김슬기⁰⁶ △김연광⁸⁰ △김응서⁰⁷
△김재형⁹⁷ △김정환⁹⁰ △김지혜⁰⁴
△김현민⁰¹ △남정훈⁰⁴ △도종윤⁹⁷
△문준성⁹² △방동욱⁰⁰ △서규섭⁹³
△송인권⁷² △신상덕⁷⁶ △양제열⁰²
△이민호⁸⁴ △이승호⁰⁵ △이종훈⁸⁵
△이진성⁰⁵ △이치복⁸⁷ △이해금⁷⁶
△임일섭⁸³ △장성호⁸⁶ △장희경⁰⁷
△전상호⁸⁴ △전주현⁹⁰ △정용학⁷⁸
△최문성⁰⁴ △최형근⁶⁹ △홍재욱⁶⁹
◆자연대 △강문기⁶⁸ △김경윤⁸⁸
△김광영⁸⁶ △김광우⁰⁰ △김민수⁰³
△김운오⁸⁵ △김원경⁸² △김정은⁰⁶
△김홍석⁰⁰ △노주철⁰⁷ △류승호⁰⁷
△문종섭⁷⁷ △박영준⁹² △박지훈⁰⁶
△심상희⁹⁵ △안병환⁸³ △윤상훈⁰⁵
△이동우⁰⁸ △이미선⁰⁸ △이병일⁹⁴
△이영근⁶⁹ △이종구⁶⁶ △이창현⁰³
△임병호⁰⁵ △장경우⁷⁸ △조병찬⁸³
△주성재⁰⁸ △최인호⁰⁸
◆간호대 △곽윤희⁷⁴ △김기자⁵⁶
△김선영⁷⁶ △신혜경⁶⁸ △이순임⁷⁵
△이진수⁰⁵ △임미현⁰³ △전귀능⁸³
△채명아⁸² △홍여신⁵¹
◆경영대 △강민선⁸³ △강왕수⁸⁴
△김기준⁰³ △김남식⁸⁴ △김동석⁶⁹
△김중우⁸³ △김진섭⁸⁵ △모과균⁸⁴
△박동원⁷⁷ △박병선⁹⁸ △박주선⁸⁶
△배성은⁸⁷ △송덕호⁷⁸ △신상훈⁹⁷
△안남기⁸⁷ △윤병은⁷² △윤상혁⁹²
△이웅진⁰³ △이현우⁸³ △장호준⁰¹
△전선규⁷⁸ △진영택⁸³ △하형석⁸⁷
△홍기수⁸⁹
◆공대 △강경민⁰¹ △강인구⁷³
△강창범⁰⁸ △강태갑⁵⁹ △고승구⁷⁶
△고정민⁰⁶ △곽두영⁰⁵ △곽병근⁶¹
△구영호⁷² △구자호⁰⁰ △구정진⁰²
△권기동⁶³ △권동현⁰⁸ △권오동⁶⁹
△김영⁵³ △김경원⁰¹ △김규은⁴⁸
△김남선⁵² △김도원⁹² △김동규⁵⁸
△김동원⁴⁵ △김병태⁵⁹ △김상원⁹⁴
△김생빈⁵⁴ △김성태⁸⁶ △김수광⁵⁷
△김수웅⁶⁰ △김수환⁶⁹ △김영석⁸⁶
△김영학⁰⁰ △김용백⁶¹ △김유희⁵⁷
△김재홍⁹⁹ △김정근⁶⁰ △김정일⁸⁶
△김종열⁷⁸ △김종현⁵⁷ △김주찬⁷⁵

△김주호⁵² △김창수⁵⁸ △김통호⁷⁰
△김형민⁰⁴ △김형태⁵⁷ △김홍근⁷⁶
△동상권⁰³ △류기수⁸⁶ △류철호⁹²
△마준경⁵⁴ △문동채⁶⁵ △박결수⁷⁶
△박봉업⁷¹ △박봉훈⁷³ △박용택⁶³
△박의종⁶¹ △박일재⁹⁸ △박재서⁶⁵
△박정대⁹¹ △방석영⁰⁸ △배오섭⁷²
△백봉근⁵⁰ △백영학⁴⁹ △백창기⁰²
△변문현⁵³ △변정근⁵² △서상욱⁸⁰
△서영석⁸⁴ △서인원⁵² △서준원⁹⁶
△선우준⁷⁶ △손무익⁶⁸ △손진호⁰⁶
△송재학⁰⁵ △송정우⁰⁸ △송철삼⁶¹
△송희국⁵⁵ △심훈섭⁰⁵ △안귀용⁰¹
△안재현⁰⁶ △안정욱⁰² △안창범⁷⁹
△양준호⁸⁰ △양화섭⁷⁸ △엄다일⁹⁸
△엄희택⁴⁶ △오병진⁰⁵ △오철석⁵⁵
△오호석⁷⁴ △옥유근⁷⁸ △우강하⁰³
△우세훈⁷⁵ △유건환⁵⁶ △유심덕⁶¹
△유태용⁵⁰ △윤경목⁰¹ △윤형돈⁹⁴
△이 룰⁰⁰ △이광민⁵⁷ △이광복⁶⁷
△이광우⁶⁰ △이근환⁰⁵ △이동선⁶¹
△이동욱⁷⁹ △이민종⁷⁹ △이병수⁵⁷
△이선형⁵⁷ △이승욱⁵⁶ △이신욱⁵²
△이우현⁵² △이원모⁰⁰ △이원복⁵⁰
△이재국⁰⁶ △이재준⁰³ △이정민⁵⁹
△이종규⁵⁷ △이종수⁸² △이혜연⁰⁵
△이호원⁹⁷ △이희영⁷⁶ △임달연⁴⁸
△임승범⁰⁴ △임채용⁸⁹ △임형준⁰⁴
△장동욱⁴⁹ △장학순⁴⁶ △전구현⁵⁴
△전영동⁰⁵ △전의찬⁷³ △전흥기⁶⁹
△정건목⁹¹ △정동섭⁶⁴ △정동식⁷²
△정동진⁶⁴ △정병호⁰⁵ △정상구⁷³
△정원배⁵⁹ △정위수⁰² △정재길⁵⁵
△정재준⁹⁰ △정정운⁶² △정충길⁷⁰
△조대현⁸¹ △조수나⁰⁷ △조승제⁵⁶
△조용재⁵¹ △조정상⁹⁴ △조정호⁶⁵
△지태용⁵¹ △차근현⁵⁸ △차석배⁶³
△차석주⁸¹ △최동석⁹⁸ △최명진⁰⁸
△최병일⁸⁶ △최성범⁰⁵ △최인영⁶³
△최호병⁶⁰ △최희정⁶¹ △편도권⁵⁴
△하태광⁸⁴ △한보혁⁰⁶ △한종률⁷⁵
△현봉섭⁴⁹ △홍종우⁵³ △홍훈기⁰⁰
△황영문⁵³ △황호남⁶⁷
◆농대 △강용신⁵⁴ △강원봉⁷⁷
△구능완⁵⁶ △권상대⁶¹ △김현⁵⁸
△김갑근⁶⁵ △김경환⁰⁵ △김고홍⁵²
△김남훈⁵⁸ △김명권⁸¹ △김명주⁸⁴

△김민지⁰⁸ △김영각⁴⁹ △김영길⁵³
△김영달⁵⁶ △김영철⁵⁹ △김인기⁶⁰
△김재웅⁶³ △김재홍⁵⁷ △김정특⁷⁶
△김종운⁸² △김종철⁸⁶ △김태규⁶¹
△김한석⁶⁶ △김형달⁵⁵ △김형우⁰⁴
△김희국⁷² △노규식⁷⁶ △류운형⁷¹
△민선홍⁵⁸ △박경제⁷⁰ △박관식⁵⁴
△박상진⁵⁹ △박선영⁶² △박수규⁴⁸
△박용제⁶⁷ △박재복⁷⁰ △박정근⁶³
△박정택⁵⁵ △박종호⁵⁸ △박창용⁵⁵
△변양석⁵⁹ △서성원⁹³ △서완수⁵⁸
△서정연⁸² △서정혁⁰³ △송호섭⁹⁵
△송환재⁴⁶ △양승업⁵² △양종성⁵⁷
△여규동⁶⁶ △오영탁⁸⁷ △오영훈⁷³
△오윤진⁵⁶ △우창명⁶⁶ △원하연⁶⁴
△유성근⁶³ △유종근⁸⁶ △윤종선⁸⁴
△이 흥⁶¹ △이규형⁵⁰ △이길상⁰⁶
△이동구⁶⁶ △이동열⁰¹ △이상욱⁵⁶
△이원재⁸⁰ △이윤환⁶⁰ △이재완⁶⁸
△이종현⁸⁰ △이종희⁸⁶ △이창규⁷³
△임병구⁶⁰ △장대석⁵⁸ △장세영⁵⁷
△장우상⁶³ △정돈철⁶⁸ △정상호⁸⁶
△정준희⁵⁷ △정해각⁵⁵ △조빈행⁵⁸
△조수경⁷² △조준기⁵⁴ △최대진⁴⁶
△태몽문⁸² △하현팔⁶⁸ △한기학⁵²
△한정수⁵¹ △한태수⁶⁵ △한휘석⁵⁷
△함영진⁷² △허삼남⁶⁸ △현재선⁴⁴
△황재우⁵⁷
◆문리대 △강신표⁵⁵ △고상빈⁵⁰
△곽영훈⁶⁰ △구본룡⁶⁹ △권순식⁶⁵
△기우탁⁵⁷ △김기영⁶³ △김남진⁵⁹
△김대전⁵⁹ △김덕룡⁵² △김동진⁶²
△김동진⁶³ △김만옥⁵⁹ △김명환⁵⁷
△김무창⁶¹ △김봉영⁵⁸ △김성기⁶⁰
△김용달⁵⁷ △김인철⁶⁰ △김홍석⁴⁵
△남성우⁵⁹ △노계원⁵⁸ △박옥출⁴⁸
△박희주⁵³ △변광수⁶⁵ △서동훈⁵⁸
△서정욱⁶⁰ △신원선⁶² △신중성⁷⁰
△신준근⁵¹ △신호순⁴⁹ △신호순⁶¹
△심사수⁵⁴ △안원태⁵² △양승영⁵⁷
△오영조⁶¹ △유준재⁶¹ △유희형⁶⁰
△윤병석⁵² △윤홍로⁶² △이계원⁵⁹
△이덕주⁶⁶ △이민성⁵⁴ △이상근⁵⁵
△이상근⁵⁹ △이선숙⁶⁹ △이용길⁶²
△이재승⁵⁹ △이정복⁵¹ △이종무⁵⁸
△이희택⁶⁶ △인오룡⁷⁰ △전광현⁵⁷
△전만수⁵⁵ △정계섭⁷⁵ △정용승⁵⁸

△조봉계⁶¹ △조상수⁶¹ △조희곤⁷¹
△주순호⁵¹ △주영태⁶⁰ △전병희⁵⁶
△최규봉⁵³ △최남준⁵⁶ △최동진⁵⁴
△표재명⁵⁴ △한홍렬⁶¹ △황재운⁵³
◆미대 △강태성⁴⁹ △김용진⁷⁹
△김지영⁰¹ △김지인⁰⁷ △김충길⁶⁶
△나성숙⁷¹ △박혜정⁶⁷ △서주희⁸⁹
△손복희⁶⁷ △신현경⁷⁹ △유 황⁵⁸
△윤옥진⁶⁴ △이우범⁶⁷ △이준환⁹⁰
△장상의⁵⁹ △정치환⁶⁰ △정평숙⁵⁸
△정혜인⁰⁸ △조형석⁰⁵ △주진희⁷⁴
△함영희⁷⁷ △황인혜⁶⁵
◆법대 △강군우⁶⁷ △곽노현⁷²
△곽종훈⁷¹ △곽희준⁵⁸ △김경룡⁶⁸
△김기수⁴⁷ △김남수⁶⁴ △김동익⁶³
△김동현⁹³ △김상구⁵⁵ △김세돈⁷²
△김소연⁰⁴ △김양일⁶¹ △김영균⁵⁷
△김영선⁵⁵ △김원철⁶⁶ △김정렬⁵⁴
△김정준⁰² △김종성⁶⁷ △김종정⁵⁷
△김종호⁸⁰ △김준교⁸³ △김중앙⁶⁵
△김철진⁵⁰ △김춘봉⁴⁴ △김해영⁸³
△김형두⁵² △나만수⁷⁸ △남기룡⁵⁶
△노용희⁴⁸ △노창호⁵⁴ △문광섭⁸⁵
△문상일⁸⁴ △박상근⁶⁰ △박상길⁸²
△박연주⁹⁹ △박영하⁷¹ △박재완⁸⁴
△박재태⁸¹ △배화승⁶⁰ △서원태⁶⁷
△서현진⁵⁷ △신광렬⁸⁴ △신효성⁸³
△안덕호⁸⁷ △안채연⁰³ △양수일⁶²
△염용표⁹² △오영진⁶⁵ △오홍석⁷¹
△유병순⁵⁵ △유해돈⁵⁵ △윤배경⁸²
△윤정석⁵⁵ △이관표⁷⁵ △이관형⁵⁷
△이권형⁰⁰ △이근윤⁷⁶ △이대영⁵²
△이두아⁸⁹ △이보미⁰⁷ △이상준⁶⁶
△이상호⁸⁵ △이성갑⁵⁵ △이성규⁵²
△이용남⁵⁹ △이용우⁶⁰ △이유진⁰⁶
△이정렬⁹⁶ △이준근⁵⁷ △이준식⁵²
△이학성⁷⁷ △이한성⁷⁶ △장순욱⁸⁴
△장재윤⁸² △정만조⁵⁵ △정수영⁵³
△정재형⁵⁸ △정태용⁵⁵ △조봉근⁵⁸
△조성기⁶⁸ △조왕제⁵⁵ △조주운⁵⁶
△최상태⁵⁸ △최영홍⁷² △최종립⁵⁴
△최중현⁵⁹ △한주상⁶³ △하지승⁰⁷
△황선표⁵⁹
◆사대 △권민아⁰⁴ △김윤상⁹⁹
△김경철⁶⁵ △김관섭⁷⁹ △김규호⁵⁵
△김남훈⁷³ △김명수⁶⁸ △김소연⁸⁵
△김수신⁶⁰ △김영석⁶⁴ △김완복⁷⁶

△김용선⁵³ △김은숙⁵¹ △김은재⁴⁵
△김인재⁰⁷ △김재철⁷¹ △김종호⁹⁸
△김종훈⁷⁹ △김주경⁵⁵ △김진철⁶⁸
△김태영⁶⁰ △김필수⁵⁷ △김현욱⁸⁹
△김혜정⁸⁵ △김효진⁸⁵ △남궁이⁴¹
△남유선⁰⁴ △노희정⁰⁶ △문정대⁵³
△민영업⁵⁵ △민용기⁵² △박대영⁸⁰
△박영배⁵⁴ △박종대⁵¹ △박종서⁵⁷
△서덕현⁶⁹ △송영아⁸⁸ △승용기⁶⁹
△신각범⁵⁴ △신상인⁰³ △심창만⁸⁴
△안운신⁵⁵ △염도균⁵⁹ △예원혜⁶¹
△유봉호⁴⁸ △유자호⁶⁸ △이길오⁷³
△이길자⁶³ △이방렬⁶⁵ △이수찬⁵⁶
△이수창⁰³ △이승학⁸⁷ △이시정⁵⁴
△이윤하⁶³ △이재만⁵² △이재용⁶⁰
△이현복⁵⁸ △이현순⁵³ △장보성⁸⁶
△장완배⁶¹ △장종산⁸² △전방근⁷⁷
△정근훈⁴⁹ △정기숙⁵⁵ △정인형⁶⁵
△정찬식⁶⁵ △정혜운⁰⁵ △정희수⁴⁹
△조병완⁵³ △조선형⁵⁹ △주경식⁶⁸
△채영자⁶¹ △천낙경⁵¹ △한창립⁵⁹
△한희숙⁸² △허현도⁵² △형남두⁵²
△홍창숙⁵⁴ △황광수⁵⁶ △황성현⁸¹
◆상대 △강정구⁶¹ △강종우⁶²
△고승현⁶⁸ △고학도⁵⁶ △구자홍⁶⁸
△권종선⁵⁴ △권태명⁵⁸ △권혁조⁵³
△권혁태⁴⁹ △김규식⁵⁴ △김두산⁵⁷
△김용민⁷⁰ △김용은⁵³ △김유일⁵³
△김윤재⁵³ △김홍배⁶³ △민병태⁵⁸
△박두섭⁵⁶ △박명식⁵⁹ △박병환⁵⁰
△박영주⁵⁹ △손한주⁵⁷ △송정위⁶⁰
△신동현⁵⁶ △신문철⁵² △안홍지⁶¹
△양재욱⁵³ △염재현⁶⁵ △위병택⁶²
△유재윤⁶⁸ △윤상규⁵⁷ △이규종⁶⁵
△이동원⁵¹ △이동재⁵⁴ △이상호⁵⁷
△이영희⁶⁷ △이재덕⁷¹ △이정권⁵⁷
△이태종⁵⁰ △이택섭⁵² △이학영⁵⁴
△이해웅⁵⁵ △이호철⁵⁷ △이후상⁶⁶
△정기완⁵² △정덕화⁵⁶ △정문화⁷¹
△정상용⁶¹ △정택순⁵³ △정호용⁵²
△조성일⁶² △지영식⁵⁷ △최병로⁴⁹
△최주환⁶⁶
◆생활대 △김동연⁰⁶ △김옥경⁷⁶
△김지연⁸⁸ △안명경⁶² △안수빈⁰⁸
△이소영⁰⁸ △이용호⁷⁸ △이재우⁷⁶
△이지수⁰⁰ △전수지⁰⁶ △조혜경⁷⁰
△조혜자⁶⁰



1등 결혼하는 중매회사

행복출발 & The One noble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대한민국 1등 결혼

1%를 위한 Honors 결혼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행복출발 & 더원노블

美 명문대 외트 스쿨(MBA) 경영진
15년 노하우의 노블레스 결혼정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무료
상담

1588-3883

02) 2023-6166

신뢰의 상징
세계최고 MBA 출신들

완벽한 맞춤형
전문특화 결혼정보

압도적인 성혼율
15년 노하우, 특허매칭

100% 신원인증
글로벌 검증시스템

1등결혼 실현
고객행복브랜드 대상

◆수의대 △과기종55 △김경휘56 △김만영50 △김명석03 △김준삼55 △김진영60 △박선규60 △서창우63 △유병문67 △조광영54 △조기형49 △조희택52 △최홍렬66 △홍소균01

◆약대 △고홍숙82 △김영길61 △김용호58 △김원선54 △김장숙58 △김태윤55 △노경희48 △문창규59 △박건지61 △박영선50 △박정옥83 △박정희51 △박창규52 △배옥남95 △송희성60 △윤상철47 △이상희62 △이정자60 △이훈자56 △이희운67 △정환수51 △조윤옥85 △조철원57 △황봉자61

◆음대 △강미증73 △김금수76 △김기홍80 △김난아91 △김소연94 △김신혜06 △박서현93 △박수전71 △박정자60 △박희덕77 △서윤진94 △서은령80 △송태균65 △유지선03 △윤기숙82 △이경미79 △이문경76 △이민나00 △이시현89 △이정현00 △이정현97 △이정화89 △이한돈65 △임동창61 △정방인07 △정상열81 △정유식03 △조대현97 △조현식07 △최영택74 △한세희06 △홍부자60

◆의대 △강동완03 △국형철76 △김기범94 △김득구50 △김수경81 △김진국52 △김청수68 △김희경03 △문예지03 △박은주03 △박현경07 △배현미06 △서동엽68 △서정기67 △송만준57 △신상만61 △신종근87 △오석환45 △유명철61 △유장희62 △윤여규75 △이강훈78 △이성희86 △이원기56 △이종표53 △정용화56 △정재면83 △정재욱02 △정주영84 △정항보81 △진정욱93 △최승호03 △최준호69 △최충신61 △최현규52 △하재철03

◆치대 △강민섭81 △강정규53 △김기달74 △김선일58 △김영진82 △김영철73 △김영호58 △김옥희77 △김우성62 △김응만81 △김정자59 △김정태66 △김종화99 △김철위57 △김평일72 △김효순68 △노철진54 △문민련58 △박승오62 △박용세60 △박재용98 △박종욱80 △성철제63 △송광수59 △안병관52 △안순찬83 △엄인웅78 △우원희73 △윤훈용53 △이경모76 △이상대70 △이상신56 △이영훈78 △이인경82 △이장훈57 △이화준83 △임광수60 △임형순63 △장도훈70 △정인환60 △조영호65 △주광섭73 △최남섭73 △최승은63 △한영복58 △한충일78

◆대학원 △김삼수87 △김선대84 △김우식66 △박용희62 △손준모83 △송일민85 △윤호윤71 △이범걸82 △이수형78 △이은성83 △이정도67 △이종규88 △이혁구86 △허찬수72

◆경대원 △박영휘90

◆교대원 △김기태71 △김충기64 △심수정71

◆국대원 △강상준02 △엄혜원05

◆법대원 △문민영03 △민창욱03 △장준혁03

◆보대원 △경광현76 △박승기82 △신금호72 △신기준64 △여현태65 △유희종00 △이경연71 △이양재61 △조준국84 △최용어67

◆신대원 △이민희73

◆행대원 △김성제90 △김용국74 △김재윤83 △오동호85 △윤시환75 △이대복77 △이원기67 △이윤빈08 △황수웅81

◆환대원 △고성하77 △송장복75 △신언교87 △윤진수96 △이종현02

△이준택71 △홍정희07

◆AMP △강은채44 △고희선41 △권교택58 △권국주38 △김도형72 △김동해62 △김석중63 △김선동28 △김성환25 △김용환72 △김원길73 △김정식39 △김철환5 △류동현57 △박근학51 △박승준59 △박원식66 △박정욱72 △박철홍51 △배신호34 △서상노73 △신문범23 △신상길18 △안병구67 △안시환20 △안종표36 △염정태40 △오동빈22 △우태명5 △유철조12 △이반우52 △이상택40 △이성섭46 △이연창72 △이종화13 △이찬국46 △이창호37 △이태호20 △임종아55 △장무익69 △정상봉24 △정용화60 △정장현40 △정하택23 △조방래40 △조용선36 △천광찬28 △최병면41 △허용득71 △홍중대4 △황의영67 △황학수27

◆AIP △강경문47 △고순란47 △김영욱47 △김유미46 △김재호16 △김정민41 △김정호47 △김창희19 △김춘진14 △박병록47 △박성일47 △박중우6 △박지홍46 △박희재1 △배주호43 △백종한47 △신길웅10 △엄성욱47 △이 강47 △이기선47 △이명래19 △이은택6 △이인자31 △이정열46 △이종진28 △이종광11 △이창섭29 △이천우13 △장희전20 △전상열47 △정진욱34 △조태웅18 △지재규47 △진영환9 △채대석15 △최용길22 △허정수46 △황구연38

◆ACAD △고재정30 △권명주56 △김순철74 △김점수74 △김조연11 △문동신55 △박용암43 △박정구38 △박혜숙74 △서삼석66 △성기태59 △심재금73 △오복용51 △오시철7 △유나준45 △이문웅27 △이승복73

△전형일12 △조현형35 △지대욱20 △채명기66 △채준석32

◆ABP △김원태5 △박길태11 △백형욱36 △서규찬36 △신민섭4 △오속희27 △허 영14 △황승환30

◆SGS △김권욱18 △김명수2 △김재경1 △박영종5 △우재하18 △유광수20 △조영원4 △황선주27

◆APC △이우용3

◆HPM △김남수14 △김상용12 △김은혜28 △김주필4 △박보경28 △박진희28 △배금자24 △배종성27 △신동열28 △신미정28 △신철준28 △안영미28 △어준선5 △이신락23 △이영태14 △이형선28 △장해영28 △정성민28 △조동순27 △조미영28 △조용균28 △조용선12 △천성문28 △한성길16 △한원석28

◆AMPP △김영진12 △김종배12 △김춘근12 △문순천12 △박홍남13 △부원찬13 △이성현12 △이재현13 △이진복12 △이호순13 △전제원12 △정영민12 △정태오12 △조현국12

◆AIC △강한석33 △구관서28 △김택근13 △남호연4 △박정수33 △성기혁13 △신양민24 △신우근4 △신재식33 △왕진원11 △이상우33 △이종대18 △정동욱33 △정재균2 △차상훈33

◆AFB △안순율8 △이광연9 △최동기9 △홍경래11

◆AMPFRI △고원선26

◆ACPMP △권정훈8 △김태완7 △조중수1

◆FIP △고영수2 △황국현4

◆GLP △가재경24 △강대철25 △고내정25 △권갑현18 △김규영18 △김동호24 △김미근23 △김용직15

△김은호25 △김태형9 △김형아21 △박영구24 △서재섭24 △손동호24 △손양석25 △신태호18 △안규철24 △연건희4 △오원복25 △왕태욱24 △유성재25 △윤보환25 △이민구25 △이상동24 △이상복25 △이우영24 △장성수24 △조후용25 △차기민16 △최도승24 △최성덕21 △최창우25 △허국중3 △홍민희25

◆ALP △김 오16 △김광주2 △김요성8 △김인숙16 △노연길10 △백진현7 △변 강2 △손성기16 △이범주14 △이흥기16 △임영철5 △장덕근16 △장세영1 △정기환6 △정영조8 △조재빈16 △조찬취16 △주경섭16 △최애영14 △최종천16 △최충경16

◆SPARC △김태곤6 △최평규4 △황을문21

◆AFP △이동영9 △한덕철10 △한순구10

◆ASP △강영길23 △김영희21 △김종원15 △김학현17 △이원조1 △장주인23 △조현익12

◆IFP △박주완6 △이동기7 △이종남7 △조용우4

◆BCP △김영순10 △김정욱10 △남기수10 △박상원10 △박재식10 △박정수3

10월 계 : 20,954,000원
평생회비 : 22,800,000원
입 회 비 : 560,000원
총 계 : 1,000,138,411원

홀커밍데이 협찬금

(9월 27일 이후 출연자)

(일금 20만원)

◆AIP △유길상9

(일금 10만원)

◆인문대 △김혜정82 △류 진78 △오세중79 △이일순84 △전원배73

◆사회대 △양승목74 △원진영84 △한형중81

◆자연대 △권철안77 △이도원71

◆간호대 △이윤경65

◆경영대 △류건상88 △신정훈90 △이창근70

◆공대 △강호문68 △경세호53 △고대중68 △고영희77 △곽상엽51 △김대욱76 △김석주48 △김성중59 △김성호78 △김신배74 △김신원64 △김영대61 △김영윤62 △김재동70 △김정근57 △김지호55 △남원식70 △노태욱69 △민계식61 △박상훈73 △박태훈78 △서우원61 △서정훈51 △손동준59 △신근식66 △어 당68 △염사연64 △오성환59 △오원석71 △원정수53 △유기형67 △이광성66 △이근명63 △이달우48 △이승관64 △이승준56 △이재철77 △이정인59 △이종웅57 △이흥구75 △임무현61 △장삼진51 △장영태83 △정갑순78

△정광진84 △정창우69 △조광연70 △조복제58 △조창휘59 △지 순54 △최종명56 △추지석59 △추현출55 △하영환47 △하준환51 △홍국선76 △홍성완62 △홍순목01 △황석영63 △황창규72

◆농대 △김상원52 △김영섭65 △김안배71 △김정묵59 △김종오91 △김탁현65 △박대경51 △박수복56 △박창서63 △신명철63 △양상홍62 △우건석55 △윤혜영03 △이규승67 △이석우59 △이선진69 △이원규58 △이정호71 △이현정64 △이현수59 △임계숙60 △정기수54 △최영태65 △한정길63

◆문리대 △강승림62 △고정택62 △권민웅62 △김기주54 △김두희52 △김성기60 △김용년54 △박건우61 △박남훈68 △박종오55 △송세호63 △엄병윤60 △유동주54 △유보일60 △이경형66 △이대승66 △이석윤50 △이영준67 △이철배58 △전종갑64 △전종구70 △차재익70 △한갑수52 △홍성관63

◆미대 △박충흠65 △전영철53

◆법대 △강흥석58 △고광석63 △김영대61 △김응완55 △김일권64 △김정술66 △나대진67 △명호근61 △문성우75 △민수명60 △박 만70 △박무용64 △박원진51 △박철근55 △배경숙49 △변학남52 △성백현78

△성패문60 △송기영69 △송두환67 △신호철61 △여동영60 △염동신84 △오복동57 △오진환75 △유흥수58 △윤남근77 △이동특59 △이상원80 △이재철70 △전명호86 △전웅진49 △정주석61 △조동원54 △차동민77 △최영도57 △하일부57 △한동우66 △황봉환73

◆사대 △강신주51 △김남조47 △김남형80 △김상욱47 △김정홍57 △김조영60 △김종찬87 △김충언58 △나도승47 △나민주85 △박 용59 △박찬구56 △성기훈71 △송대량60 △오성종58 △이기석59 △이원순45 △이인규59 △장충식52 △전병일66 △정근화63 △조용복55 △최영자65 △최용준61 △하순복60 △황구연50

◆상대 △강주석61 △고병우52 △김승훈68 △김정은52 △문대원71 △박길상68 △박성석61 △박영조61 △변창기54 △사공일58 △서태식58 △성하현59 △심재엽63 △안재동60 △엄수명61 △오강욱56 △원우식52 △유석기57 △윤우진61 △이용진68 △이재원55 △이정상59 △이태용65 △이형직67 △임채주55 △주 일50 △조 순46 △최남해52 △한석윤54

◆생활대 △김혜경72

◆수의대 △고기창66 △김인기55 △나중극54 △신현일57 △윤찬호69 △윤화중54 △정영채56 △조영웅63

◆약대 △나도선67 △문승만56 △송창진54 △심규장70 △우종근61 △유 영51 △이경수66 △진 강56 △차기현59 △채병호60 △최학배76

◆음대 △강신자56 △고순자52

◆의대 △권지현01 △김구상69 △김남호74 △김수진80 △김영홍49 △김은경90 △김주일44 △김찬영46 △박도준81 △박인원76 △서정호85 △성상철67 △신순철62 △신정은93 △유명철61 △윤정철59 △이갑노65 △이관희75 △이순용57 △이순형56 △이진수68 △임 영75 △장청순54 △정용인68 △최규완55 △최종성69 △최형석52 △한동수59 △한중수71

◆치대 △권영희81 △김경중72 △김경진74 △김애라74 △김우철69 △김종열60 △김주환47 △문일환65 △박상균66 △양유식70 △윤임도72 △윤철민82 △이재천80 △임순모70 △정용호65 △정의종65 △최순철73 △한광수62 △한금남83

◆대학원 △김철수73 △남선현77 △윤옥경75 △이사묵52 △장승재83

◆경대원 △이병재69 △조현국73 △허철부67

◆보대원 △박대근63 △박원길65

◆사대원 △김적승69 △이원성67 △조무제65

◆행대원 △김광립80 △김상영65 △양석호67 △이두현74 △이창희82

◆AMP △곽상엽34 △권혁중5 △남기욱32 △류래경69 △오병제21 △우정욱37 △이호수35 △장익상25 △전현찬44 △조병식55 △최강호60 △황종갑56

◆AIP △김수기14 △김승겸16 △김용석25 △박승욱21 △이명호20 △이의현20 △이종철41

◆ACAD △김성은30 △이동호24 △조봉현55 △최형태68 △황갑주48

◆ABP △이계용2 △이관철3

◆SGS △이종원17

◆APC △김철수6

◆HPM △김재영18 △노동일7 △서정식27 △이상완11 △이영만14

◆AMPP △박길완6

◆AIC △이정재2

◆AMPFRI △신연경22 △최창혁4

◆ACPMP △박용웅2 △박찬의7 △정영문4

◆FIP △황귀봉1

◆GLP △신동열3 △신용식17 △전인해14

◆ALP △강대진11 △황은연12

◆SPARC △김권진12 △김인권16 △김창자13 △임장주11 △황용규15

◆ASP △김광욱12 △김성보11 △장기원5

◆IFP △이호진5

◆포항지부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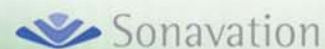
◆여수지부동창회

 **St.Scott**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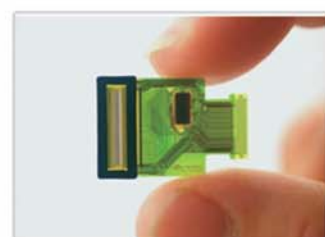


"영풍의 향기"가 가득한 "세인트스콧 런던"
www.stscottshop.com

(주)패션하우스



누군가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노립니다.



첨단 지문인식기능
-소나베이션 지문인식 모듈

당신의 손끝이 당신을 지킵니다.

베프스의 BIO USB는 지문인식기능을 비롯한
3중보안 시스템으로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하게 지켜드립니다.

BIO USB



BIO USB PREMIUM



E-USB



Fingerprint Sensor



S-GENDER



SECURITY MICRO
SD CARD

